

레위기 1 장

1. 레위기는 이름으로 보면 레위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다. 레위기 첫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1) 누구의 이야기이며 2)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자.

1) 여호와와의 이야기(1:1):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부분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결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요한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으며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썩 좋은 질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묻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다.

2)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이야기: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점이다.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니다.

2.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수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고르반)의 기본은 ()나 ()이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엇 대신 드리는 것일까? 그것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소나 양(2):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생명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고 것이 헌금이다. 헌금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다. 삭을 드립니다라는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

없다: 굶이 따지자면 소나 양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물은 예수님뿐이다. 소든 양이든 우리 자신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3.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일단 세 종류이다. 소(3-9), 양이나 염소(10-13), 새(14-17)를 드리는 각각의 경우가 있으나 대표적인 경우는 소를 드리는 것이다. 번제용 예물은 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는가? 흠이 좀 있으면 안 되나? 암컷은 안 되나?

흠없는 수컷은 죄없는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한 곳이 외양간(마굿간)이다(눅 2). 송아지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송아지가 마굿간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태어날 집도 하나 없는 불쌍한 송아지인 셈이다. 스스로 여기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이다.

4.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1) 어디이며 2)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1) 회막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의 입구,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한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라고 해야겠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코람 데오)이다. 내가 속한 가정, 회사, 사회... 그 어느 곳도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제사이어야 한다. 기도와 찬양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않은지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도록: 받으시는 분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의 느낌이 중요하다. 사람 사이에서도 가끔 내게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다른 이에게 기분 좋은 일이 더러 있다. 내가 푼수짓을 함으로 남이 즐거운 때가 많이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푼수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푼수짓은 많이 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남자들이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추궁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 부부간에는 받는 사람이 받았다고 느낄 만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받을 사람이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쪽팔리는 일도 더러해야 한다.

5.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열납하시게 할 수 있는가?

머리에 안수하면 된다(4): 按手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소와 내가 하나가 되어 소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못한 존재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죄 용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고 하셨다.

6.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은? (조금 복잡하게 뒤섞여 있으므로 대조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는 일, 안수하는 일, 잡는 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제사장이 하도록 명시된 부분을 제외한 전부이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이것이 바로 죄인된 내가 당해야 하는 일이란 것을 느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특히 애매한 것이 가

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이 누구의 일이나는 것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같은 표현이다.

7. 제사장들이 할 일은?

피를 뿌림,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음, 번제용 고기를 벌여둠, 불로 사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일만 담당한다. 한글 개역 성경 13절에 나타나지 않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의 원어상 주어는 그이다. 제사장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주어는 제사드리는 사람의 일이다.

8.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대강 묘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피 칠감에, 귀신 팔에, 녹초가 되었을 것: 숨쉴수 없는 사람 같으면 종일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고통이 싫어서라도 죄짓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고해성사가 싫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천주교 교인의 고백도 이런 비슷한 점이 있겠다.

9. 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단 사면에 뿌림: 성경은 피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긴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가 가능하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피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피를 바름으로 정결케 되거나 구원을 얻기도 한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이 생각이 고대에 상식이 아니었다.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결론일 텐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문헌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10. 불에 사르는 것은?

각을 뜯 것,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갱이: 거의 전부

11. 물로 씻는 것은?

내장과 정갱이(더러운 것): 이왕 불에 사를 건데 씻어야 되나?

12. 예물이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이면 차이점이 있는가?

실제로 차이는 없다: 장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회막문(3)과 단 북편(10)은 실상은 같은 곳이다. 회막문 앞에 제단이 있고 짐승을 잡기 위한 장소는 제단의 북편이었기 때문이다. 두 곳 다 여호와 앞(3, 5, 10)이라는 점에서도 같은 곳이다.

13. 하나님께서 고기를 전부 태우라는 것을 보면 불고기를 대단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고기 고르는 방법이나 요리법을 잘 모르시나 보다. 고기 고를 줄을 잘 모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기가 부드럽기는 암컷이 더 부드러운 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은 맛이나 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온전하게 불태워 드린 제물은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를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어디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 맡으러 다니실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14.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선 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다고 하신다. 더군다나 이것은 제사의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2) 달란트 비유의 어떤 점과 일치하는가?

1)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의도가 중요하다. 돈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다.

2)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심: 하나님께서 결과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주어진 형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느냐를 따지시는 분이시다. 한 달란트 남기고도 열 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칭찬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과부의 두 렵돈을 기뻐하신 예수님처럼(막 12:42, 눅 21:2)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제물이 비둘기 새끼라고 가볍게 드리지도 말자.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다.

15. 레위기의 시작을 출애굽기의 끝을 비교해서 무슨 연관이 있나 보자.

출애굽기의 끝: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레위기의 시작: 나타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심

16. 번제(燔祭, burn)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火祭)라(9, 13, 17). 이 말은 같은 제사를 두고 번제라고도 하고 화제라고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화제이고 어떻게 보면 번제인가?

번제는 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고 화제는 제사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사의 이름이 많아서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움이 있다. 우선 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과 제사 방법을 가리키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불로), 거제(끓여올림), 요제(흔듬), 전제(부음)가 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

17. 난 어릴 때 참 영리했나 보다. 힘들여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돈을 많이 찍어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지폐는 실질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 질이 좋은 천 조각일 뿐이다. 원래 지폐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보관증이었다. 지금도 태환지폐는 은행에서 금으로 바로 바꾸어 준다. 그럴 필요가 없어서 거의 모든 지폐는 불환지폐가 되었지만... 지금도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가진 지폐는 휴지조각(요즈음은 천조각?)이 된다.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어느 시인이 노래를 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날마다 태워 드리라는 것은 아니다. 맛이야 차라리 불고기가 낫지... 이 짐승들의 죽음이 지폐라면 은행의 금은 무엇일까?

예수의 죽음이다: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18. 이렇게 험한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다 예수님 덕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롬 12:1)

제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19. 야생동물을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가?

생축 중에서 드리라(2, 10)고 했으므로 안 된다: 정성들여 키운 짐승이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산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하셨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20.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심지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셨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를 위하여 악용한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중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말 1:8, 13; 레 22:22).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를 신용해야 한다. 소를 드릴 능력이 있는데도 만약 비둘기로 예물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처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심규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흘려... 너 무엇 하느냐? 무엇을 내 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신 그 분을 믿고 받아 드리라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다.

열납(悅納): 기쁘게 받음

안수(按手): 피차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 자신이 가진 것을 전가(轉嫁)시키는 행위

각(脚)뜨다: 짐승의 몸을 몇 부분으로 나누다.

레위기 2 장

1. 소제(糝素, 祭)란 선물; 공물이란 의미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이다. 소제의 주(主)제물은 무엇인가?

고운 가루(1, 4, 5, 7)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14) 기름: 이것들의 공통점은 철저히 깨어 부순 점이다. 태우거나 제사장에게 줄 것인데 그냥 드리면 안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어져야 한다. 우리 자신 말이다.

2. 소제의 부(副)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향(1) 소금: 유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조리하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아래 질문 참조).

3. 소제를 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고운 가루를 기름에 개서 유향과 함께 불로 사르는 것(2)이다. 유향을 드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1)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드림(4)

2) **번철에 부쳐서:**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기름을 부을 것(5, 6)

3) **술에 삶아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라(7)

볶아 찢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릴 때의 방법이다.

4. 조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절차는 동일하다. 1)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과 2) 나머지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3)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 제물을 단 위에서 불로 사름(2, 9-10)

2)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3)

3)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 것, 소금은 반드시 칠 것:**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들이다.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꿀은 이성의 향락을,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징한다.

5. 번제와 소제의 차이점을 1) 드리는 제물과 2) 방법에서 찾아보자.

제물의 차이: 번제는 생축이고 소제는 곡물이다.

방법의 차이: 번제는 전체를 다 드리고 소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1:9→2:2-3, 9, 16).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과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사장은 굶어 죽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굶어 죽어가는 제사장들이 불쌍하다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양식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도 받지 않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잔인한가? 놀랍게도 전도사가 된 내겐 너무나 감격적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까?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희생이 감격스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느냐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원함은 제사장들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사랑이다.

6. 번제와 소제처럼 제물이 다르면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게 마련이지만 제사를 드린 결과는 어떤 점에서 동일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1:9, 13, 17, 2:2, 9): 짐승을 잡아서 태운 것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는가? 곡식을 기름에 섞어서 태우면 좀 낫고 낫겠다. 여기서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둘 다 화제(火祭)라는 점도 동일하다.

7. 번제나 소제는 자원제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은?

드리려거든(1:2, 2:1):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도 뒤에 나온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의무적이고 회개하여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8.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탐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제사를 기념물이라 함(2, 9, 16):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다. 결혼 몇 주년 기념이라고 외식하거나 선물을 하는 기쁨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기쁨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이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마지못해 시간 때우는 성도만큼 불쌍한 성도는 없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 봉사, 나아가 일생이 감격스러운 것이다.

9. 소제에 반드시 빼야 하는 것과 없으면 빼도 되는 것은?

반드시 빼야 하는 것: 누룩과 꿀,

없으면 빼도 되는 것 유향: 행실이 도저히 안되겠거든 그래도 오라는 뜻이다.

10. 이들 제사가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증거는?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소금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제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속내의 일단을 보여준 대목이라 하겠다. 복음이 더 넓게 계시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알게 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

11.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1번 질문)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고운 가루 혹은 볶아 찢어진 곡식: 자신이 깨어져야 함, 깨끗함과 순결함, 상한 심령. 고운 가루란

말은 철저히게 자신의 모양이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곱게 드러지려면 자신이 완전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여야 한다.

기름: 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쥐어짜는지 껍묵을 보면 알 수 있다. 망치로 때려도 잘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릴 자세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성경의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한다. 고운 가루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되기 쉽다. 기름으로 뭉쳐서 하나된 고운 기름가루로 드러져야 한다.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러질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12. 부(副)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럴까?

유향: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어야 한다. 가끔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나는 삶이어서 죄송스럽지만 유향대신 다른 방법도 열어두셔서 유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자.

소금: 불변성을 상징한다.

누룩: 죄의 빠른 전염성과 부패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꿀을 넣지 말 것: 인생의 즐거움,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러질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육체적인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13. 같은 제물이라도 제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우와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꿀은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평생 꿀맛을 못 보는데...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제사 때에는 누룩이나 꿀도 드릴 수 있다: 일종의 감사제이다. 누룩도 전혀 드리지 못한다면 제사장은 평생 딱딱한 빵만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 직접 올려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서는 금지하는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성경의 법률이 현재의 법과 비교하여 얼마나 인간미를 담고 있는지 아는 대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 배고픈 사람이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신 23:24-25), 여자가 싫어져서 버려야 할 경우(출 21:10), 갓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신 24:5) 곡식을 벨 때(신 24:19)... 하나님께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다는 놀라운 사실도 잊지 말자(마 19:8).

14. 하나님 아닌 가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방법이나 제물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제물을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는 이런 여유로움이 없다. 심청이가 물에 뛰어들어야 했던 이유나 비슷한 예와 비교해 보라.

가짜 신들에게는 드리는 제사는 잔인하고, 파괴적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세심하게 인간을 배려하고 있다.

15.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과 남은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일까? 왜 그럴까?

소제물의 남은 것(3, 10):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남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다.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성이 있을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경고함(레 2:3, 2:10, 6:17, 7:6, 10:17, 14:13, 24:9). 진설병, 향(출 30:36), 여호와께 드러진 예물들. 원래 거룩의 뜻은 구별된 것을 가리킨다. 특별히 구별하여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란 점에서 보면 남은 것이 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16. 소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드리면 될지 생각해보자.

유향: 비싼 유향대신, 삶든지, 굶든지, 부치면 된다. 여기서도 대속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러야 할 유향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대신에 다른 방법을 열어두신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야 하지만 제물의 가치가 되지 않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을 바치신 것이다. 이런 대속의 개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유향은 드리려면 전체를 하나님께 드러야 한다. 때로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러야 하는 것도 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러야 한다.

소제(素祭): 선물, 공물을 뜻함, 받은 호의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유향(乳香): 우유빛 나는 방향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화덕: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 떡이나 과자를 굽는 데 사용됨

번철: 쇠로 만든 냄비형 철판

레위기 3 장

1. 레위기 3장은 정말 재미없는 글이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내용을 모르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3: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기름의 모양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없는 셈이다. 한번쯤 기회가 있으면 소나 양을 도살하는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2. 번제는 일반적인 범죄(1:4)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제사이고, 소제는 땅의 소산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제사다. 그렇다면 화목제(암사제)는 어떤 성격의 제사일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사

3. 3:1절의 드리려거든과 1:2, 2:1절의 드리려거든이 다른 점은?

3:1절의 드리려거든: 제사가 아닌 제물의 선택

1:2, 2:1절의 드리려거든: 제물이 아닌 제사의 선택

내용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1~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다.

4. 내장에 덮인 기름은 무엇이며 내장에 붙은 기름(3)은 무엇일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 전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이다. 동물의 내장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주머니에 둘러싸인 채 복부라는 큰 주머니에 담겨있는 셈이다. 커다란 쓰레기봉투 안에 작은 봉투가 수북이 담겨있는 형태이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내장의 일부로서 내장과 같은 운동을 하면서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콩팥은 작으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은 엄청나게 크다.

5.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은?

1) 암컷도 쓰임: 남녀 모두가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호 교제에 있다면 상호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일반적인 제사행위에서 이런 예를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제사에서 남녀간의 구별이 명확하게 지켜져 있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특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서로 싸우며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한 쪽을 우위에 두신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완악함이 이 균형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평화로운 세월이 계속되면 여자의 우위가 두드러지고 전쟁이 지나가면 남자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과거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린 시대가 적잖게 있었다(신라시대나 조선 중기). 지금은 여성 상위시대니까 평화가 제법 오래 유지되었나보다. 미국의 오랜 평화가 가져다 준 부작용(?)이다.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2) 화목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반드시 번제 위에 드려진다(3): 화목제 자체만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번제물이 있어야 그 위에 화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선한 노력과 봉사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드려져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믿음없는 사랑, 봉사는 헛것이다.

3) 내장의 기름만 드림: 사람이 먹지 않는 기름만 하나님과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먹었다.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또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이 가난한 이웃과 성막뜰에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4) 비둘기 불가: 화목제의 속성상 함께 나누기에는 양이 적은 탓이기 때문일 것이다.

6. 화목제의 희생이 소일 경우에 제사 드리는 절차를 정리해서 번제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1)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 번제에는 흠이 없는 수컷만

2) 여호와 앞에서(1): 회막 문 앞에서, 단 곁에서, 단 북편에서 라는 표현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 여호와 앞이다. 모든 제사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 제사는 좁게 보면 예배지만 넓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다. 제사는 반드시 여호와 앞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만 여호와 앞이고 가정이나 직장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3)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과 제물이 하나 되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4)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 아담에게 정녕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지은 인생이 피흘림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5) 기름을 드렸다(사람이 먹지 않는 것) ↔ 번제의 경우에는 각을 뜯은 것,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갱이, 즉 전체를 화제로 드렸음

6) 번제물 위에서 화제로 드림: 화목제 단독으로 드려진 것은 아니다.

7. 같은 화목제를 소 대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없다: 羊의 경우에 미려골 부분, 즉 기름진 꼬리 부분을 추가하도록 되어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

은 없다. 그러면 비싼 소 대신 양이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내키지 않고 아까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

8.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고 제물을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사행위는 본인이 할 수 없었다. 왜 결정적인 역할을 본인이 하지 못하게 할까?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고 하셨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중개역할을 해야 했다. 중보자되시는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육체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기름은 육체를 보호하고, 힘의 근원이며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생명은 피에 있고, 육체는 기름에 있다. 간단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런 것이 생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근대에 와서 되어진 일이다. 이래도 성경을 수천년 전의 책이라고 할 것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다.

10. 다른 예물을 화제로 드릴 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더니 어린 양을 화목제로 드릴 때는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11)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일까? 같은 화목제로 염소를 드리면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고(16) 소를 드려도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다(5). 결국은 식물이라는 표현이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같은 표현이다.

레위기 4 장

1. 3장까지 제사를 설명할 때 시작한 말은 '드리려거든'이었다. 여기서서는 그런 말이 없다. 제사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원에서 의무로: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2)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저 용서한 것은 아니다. 벌받은 자격도 없는 우리 대신 독생자가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다. 사회적인 법을 어겼거나 대인관계에서 죄를 지었으면 기본적으로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벌이 싫으면 아예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뜻이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2.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하는가?

속죄제 (14 ← 3)

3. 제사장이 금령을 어겼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의 절차를 요약하고 번제와 다른 점을 찾아보자.

1) **수송아지료:** 번제보다 제물의 크기가 같거나 작다.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보다 범죄를 회개하는 제사의 제물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 감사 헌금과 속죄를 위한 헌금(2)이 어느 쪽에 예물이 많아야 할지 생각해 보자. 속죄를 위해서 쉽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2)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

3)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 향단 뿔에 바를 것,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 ↔ 번제의 경우에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 (8번 문제→)

4)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질을 번제단 위에 사를 것(화목제와 동일)

5)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을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른다.**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냥 소각하는 것이다: 고기의 각을 뜨지 않는다. 물로 씻지도 않는다. 범죄한 예물의 고기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주여지지 않는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제사에 사용하지 않고 소각장에서 야마운 고기를 소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송아지가 불쌍하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소용되지 않고 소각되다니 불쌍한 송아지야! 그것이 바로 범죄한 자신의 모습이, 범죄한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6) **번제에 항상 사용되었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다:** 용서는 하시지만 결코 기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회중의 속죄제를 제사장의 속죄제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는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이지만 대표라는 것이지 차이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 **수송아지료:** 회중 전체의 죄와 제사장의 죄가 제물이 같다?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의미이다.(5번 문제→)

2)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다가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

3)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 향단 뿔에 바를 것,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

4)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질을 번제단 위에 사를 것(화목제와 동일)

5)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을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 버리는 곳에서**

5. 회중 전체의 죄와 제사장의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

같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죄가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역으로 보면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의미이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나 목사 한 사람의 잘못이 일반 백성이나 성도 한 사람의 죄와 같지는 않다. 아니, 엄청난 죄이다. 목사 안 되는 것이 복이겠네! 먼저된 자가 나중된 자를 실족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자뿔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린 아이라도 실족케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6. 족장의 속죄제가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수송아지 대신 수염소를 드리는 것: 죄가 조금 가벼운가? 그 외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다. 피의 처리 방법에도(향단과 번제단)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흠없는 수(염소)

2)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다가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

3)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를 것,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

4)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질을 번제단 위에 사를 것(화목제와 동일)

- 5)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을 진 바팔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 버리는 곳에서
7. 평민의 개인적 속죄제가 족장의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암염소로 어린 암양으로: 왜 굳이 암컷으로 드리라고 할까?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면 암컷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뜻도 되는데? 값은 더 비쌀 것 같은데? 제사에 온통 수소만 사용해서 씨 마를까 걱정해서?
8.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정리해 보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인 경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 향단 불에 바를 것,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
족장이나 평민일 경우: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를 것,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
이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했다. 더 엄중하게 회개해야 한다. 그만큼 죄가 더 중대하다는 의미이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는 말씀처럼 피를 뿌림으로 용서가 가능했다.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에 얼마나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독생자의 피를 뿌리고야 끝을 맺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결코 범죄할 수 없다.
9.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다 같은 장소인가?
9번 (4, 4, 6, 7, 15, 15, 17, 17, 24): 두 곳을 가리킨다.
회막 문(4), 회막 앞(14), 번제 희생물 잡는 곳(24): 성소 바깥의 제단이 있는 곳이다.
성소 장 앞(6, 17), 회막 안 향단 불(7): 성소 안이다. 결국 성소의 안이든 바깥이든 여호와 앞이란 말이다.
10. 같은 죄를 지었다면 신분에 따라 벌도 같아야 하나 달라야 하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 라 하는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신분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성경은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르다. 제사장이 지은 죄와 일반백성이 지은 죄의 벌이 다르다. 같은 죄라고 해서 동일하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가난한 자와 부자에게 선고한다면 오히려 불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부자에게 벌금형은 의미가 없다고 용감하게 징역형을 선고하면 병보석으로 빠져나온다.
11. 전체적으로 볼 때 번제와 속죄제가 다른 차이 중에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은?
 번제는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속죄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원칙은 그렇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다소간의 여지는 있다(5:7-13).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 아니다.
12. 다음 구절은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문 밖' 혹은 '영문 밖'이라고 한 장소는 본문의 어떤 장소와 같은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11-12)
진 바팔 재 버리는 곳(12): 진 바팔은 버림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장소로 여겨졌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바팔 어두운 곳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마 8:12 마 25:30). 그 곳에서 자신을 불태워 희생함으로 속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결한 곳(12)이라고 한다. 그 곳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불살라지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다. 바팔 어두운 곳 중에서도 오직 거기만! 누구든지 부정한 자(문둥병자, 혈루증 환자)에게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사람의 부정을 정하게 해 버린다.
13. 금령의 금(禁)자는 두 나무(林)와 보일 示자로 이루어진 글자다. 보일 示 자는 뉘신 기자이기도 하다. 신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단어에는 示가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된다. 예를 들면, 祭祀, 祈禱, 祠堂, 祖上崇拜, 祝福 등이다. 금할 금 자는 두 나무와 신이 합쳐진 글자가 되는데 어떻게 금한다는 뜻이 발생되었을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서 엄숙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한자를 가르치면서 이것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 없을 것이다.
14. 제사장은 이 땅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제사장이 죄를 짓는가? 당연히 지을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는가?
죄짓지 않는 제사장의 대역일 뿐이다(히 9:12-14, 10:12, 14):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그 자체로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15. 다음 히브리서의 제사와 본문의 제사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 10:12-14)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한 명의 제사장: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범 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혼자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릇 = 부지중에

罪贖: 죄악에 대한 재앙

레위기 5 장

1.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부정이지만 편차가 심한 편이다. 고르게 분산된 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허물'이다. 1장에서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다가 왜 여기서 갑자기 허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그런 허물이 있을 때 드러야 하는 제사를 얘기하려고.

2.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란 올바르게 증언하겠다는 맹세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라는 재판장의 요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NASB, NIV). 흔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치는가?

모른 척 해라: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다. 경찰도 오라 가라 하고 피해자가 알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때로는 현상금이 걸리거나 인상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악한 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한다. 침묵함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3. 4절에는 그 중 하나란 표현이 있고 5절에는 이 중 하나란 표현이 있다. 각각의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4절의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은 어느 쪽이든지. 하나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이라는 의미이다.

5절: 1절에서 4절까지 언급한 허물 중에 하나

4. 속건제는 14절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6절의 속건제는 정식 속건제인 셈이다. 정식 속건제와 어떻게 다른가?

제물이 다르다: 내용상 속죄제이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나중에는 별 구별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비슷한 것이었다.

죄목이 다르다: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것이 속죄제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죄는 속건제로 드렸다.

5. 어떤 일들이 부정한 일들(죄되는 일들)인가?

- 1)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치 않는 일(도덕적인 범죄)
- 2) 부지중이라도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일(종교 의식상의 부정)
- 3) 사람의 부정한 일(주검을 만지는 것, 출산, 문둥병, 유출병...)에 다닥치고 깨달은 때
- 4) 무심코 한 맹세

6. 부지중이나, 무심코 저지른 죄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형법은 이럴 때 무슨 죄가 성립되며 본문에는 2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현대의 형법: 미필적 고의, 과실치사상 등의 이름으로 조금 사정을 봐주긴 하지만 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 엄마는 자기 때문이라고 하기 쉽다. 괜히 심부름을 시켜 가지고... 본문과 경우가 약간 다르기 하지만 이럴 때 쓸데없이 자신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지중이라도 허물이 있는 것: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일, 아마 신경을 쓰면 이런 잘못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라서 더 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 같다.

부지중에 만지거나, 저지르고도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는 것: 사람의 부정한 일, 무심코 한 맹세 등이다. 깨닫지 못해도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도 모른 채 허물이 있다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잘못을 피하려면 모든 사람을 피하는 수밖에 없다. 대인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이렇게 세심하게 인간을 고려하고 있다. 모르고 저지르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경우에는 이런 잘못이 있을까 해서 깨닫기도 전에 예방조치로 번제를 드렸다.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기도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는 표현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방조치인 셈인데...

깨달은 때에는 허물이 있다? 모르는 게 약이게? 제대로 유대인으로 살려면 최소한의 율법이나 정결법을 알아야 한다. 모르면 관참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다. 율법이나 정결법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몰라서 복장 편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모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답답해서 안달이 난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답답해서 못 견디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유대인들은 천하태평이고...

7.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정리해보고 번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1) 범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야 한다.

2)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것

3) 양이나 염소를 드릴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릴 것.

속죄제: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찢개지 말며 피를 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 것

번제: 번제의 규례대로, 머리를 비틀어 꿸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역통과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 것.

4) 만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드릴 능력도 없으면,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일(약 한 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은 기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다른 점: 형편 어려운 사람에게 제물을 가루까지 낮춰준 점: 하나님은 참으로 끈질기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받아야 되나? 악착같이 속죄제를 받아야겠다는 말은 반드시 와서 속죄를 받으라는 의미이다.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다.

8.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번제를 드렸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뜻인가?

회개는 먼저고 그 다음에 헌신이 따라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제법 있다. 자신의 명예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영터리 샅근을 경계해야 한다.

9.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7, 11)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자비하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철저하심: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회개는 해야 한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비둘기 형편도 안되면 가루를 가지고도 오라! (가루는 돈이 들지만 산비둘기는 잡아오면 더 싸게 치지 않을까?)

10. 속건제, 속죄제가 번제, 화목제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이 다르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다.

속건제와 속죄제: 속함을 얻으리라는 표현뿐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1. 가루를 드리는 경우에 소제(2장)와 속죄제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속죄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드리지 말 것: 기름은 대부분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고 유향은 성도의 향기로운 삶을 가리킨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즉, 초신자가 처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에게 성도다운 향기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회개만 필요한 것이다. 기름과 유향은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다.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나오라? 아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야 한다.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는 자는 기름과 유향을 드리지 말라!

12.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기억하고 계심을 말한다. 그래서 고운 가루도 허용하지만 제사에는 원래 피가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것(12): 다른 사람이 드리는 번제에 곱사리 끼여서 드리는가? 두 종류의 번제가 있는데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에 같이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피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 내가 못 흘리면 남이라도 흘려야 한다. 도대체 누구 피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13. 뉘이란 허물이란 뜻이다. 허물이나 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본문은 구별하고 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범과,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함: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 직접 범죄함이다. 속죄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범죄이다.

14.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범과한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어떠한가?

1)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모세다(4:1, 5:14). 얼마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모세가 지정해 주라는 것이다. 다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서 드렸다. 속건제는 제물을 모세가, 후에는 제사장이 지정해 주었다.

2)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수량을

3)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배상의 성격을 가진다. 하나님 대신에 제사장에게 배상하라는 의미이다.

15.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1) 제물을 자신이 정하지 않았다. (즉 너의 지정한 가치에서 너의의 격이 내용상 주격이다)

2)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예바: 약 23리터, 예바 1/10은 약 2.3리터 (한 되 정도)

레위기 6 장

1. 남의 물건을 1) 맡거나 2) 전당잡거나 3) 강도질하거나 4) 능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5)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면 속고제를 드려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2)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웃에게 선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할 수 없다.

2. 남의 물건을 몰래 가로챘다가 탄로가 나면 엄청나게 손해이다. 왜?

물건을 돌려줄 때 1/5을 더해서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 속고 제물까지 드려야 하니: 싸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없다. 다른 제사와 달리 형편에 따라 제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로지 흠없는 수양으로 드려야 한다. 일반인들은 당사자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당사자에게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다했은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더 심각하게 요청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 51:4)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 없는 숫양(6)이란 말은 숫양 중에서도 값이 좀 더 나가는 것과 적게 나가는 것을 지정하라는 것이다.

3.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악덕상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5): 즉시 배상하라는 말씀이다. 어떻게든지 미적미적 해서 없었던 일로 해치우거나 이자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속 검은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는 세상이다.

4. 죄지는 자에 대한 규정치고는 너무 관대하다. 가장 관대함이 잘 드러난 구절은 무엇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7): 사람들끼리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께 지은 죄도 그런가? 성령훼방죄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훼방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도 용서된다.

5. 번제나 소제에 대해서 앞에서 다 말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서 설명한 제사법과 비교해 보면 다소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1, 2장의 번제나 소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제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를 '법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시행세칙' 같은 것이다.

6. 번제의 규례를 제사장이 할 일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

1)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고: 아침마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끊이지 않는 셈이다. 민 28:3-4에 보면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 대신 드려지는 제물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2) 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꺼지지 않는 충성과 헌신,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한다. 교회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꽃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직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7번 참고)

3) 세마포 끈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할 것은 가려야 한다. 예배 시간에 반바지나 치마는 불가능한가? 제사법이나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옷으로 가린다고 하나님의 눈에 가려지나?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끄러움에 그만큼 예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4) 제를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제사장 복장으로 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장난을 치는 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성도가 죄에 물들어 있다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다. 죄와 짝해서는 안 된다.

5)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사를 것(8번 참고)

7. 번제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3+1): 아침마다' 라는 표현까지 추가하면 4번 반복하는 셈이다. 제물은 끊어지더라도 불은 끊이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제물도 조석으로 드렸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속물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타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이 제물을 힘입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집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이유와 비교해보자. 그것을 집안의 불씨라고 하면서 그것이 꺼지면 집안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었다.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8. 우리가 범죄하고 돌이킬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희생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내 재산을 다 드리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12절: 번제물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사르라: 번제없이 화목제물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예수의 희생없이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번제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화목제는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제물이기 때문이다.

9. 재를 버리는 곳이 왜 정결한 곳이 되는가? 진 밖이란 버려진 곳, 어두운 곳이라는 말인데?

자체가 정결한 곳이 아니라 버리는 재가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 장소가 정결한 곳이 된 것이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도 부정하는 것 아닌가? 결과는 반대로 되었다. 예수님의 정함이 오히려 부정한 여인을 정하게 만들어버렸다.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을 떠나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오염된 세상을 내가 정화시키는 것은 더욱 잘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맑은 물로 오염(?)시키며 살자.

10. 다시 소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 1)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유향 전부를 불살라
- 2)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 3)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화목제만 예외), 회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소득이다.
- 4) 소제의 나머지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아론의 남자는 다 먹어야 한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거룩하여야 한다?)

11. 다음 두 구절은 다소 애매하기도 하고 번역본에 따라 차이도 있다. 만지면 제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만지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뜻일까? 출 29:37, 30:29, 레 7:19, 22:1-7, 왕상 1:51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18),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27)
제단은 만지는 자가 거룩하게 되고, 제물은 정해진 사람 외에는 결코 먹을 수 없는 것이므로 제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묘한 존재이다..

12.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20)이란 위임식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떻게 드리는가?

- 1) 고운 가루 예바 1/10로 소제를,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 2)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서 썰어다가 소제로, 하나님께 향기로
- 3) 제사장의 소제물(위임식의)은 온전히 불사를 것 (먹지 말 것)

13. 제사장이 할 일을 중심으로 다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리해 보자. (4장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여러 경우를 비교해서 대답할 것)

- 1)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속죄제의 희생(궤장과 평민의 속죄제)
- 2)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고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

14. 피가 묻었으면 반드시 빨아야 하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닭고 잘 씻으라는 것은 무엇을 경계하는 말일까?

거룩한 것이 다른 것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 토기에 삶으면 기름이 토기에 배어들게 마련이다. 유기는 잘 닦아내면 완전하게 닦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도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불신 세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라는 뜻이다. 물을 때는 묻더라도 닦을 때는 반드시 닦아야 하고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면 깨뜨려야 한다.

(그 시절에도 유기가 있었을까? 히브리 원본 확인 6:24 이하 없음)

전당 (典當): 물건을 담보로 함

능봉 (勸捧): 속임수나 강제로 빼앗는 것

레위기 7 장

1.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5장(5:6, 15, 16, 18, 19)에도 있고 6장(6:6)에도 있다. 여기서 또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장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와 제물에 관한 내용, 6장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7장은 제물을 드리는 절차에 관한 언급이다. 비슷하지만 5, 6장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7장은 제사장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나 제물은 백성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절차는 제사장들에게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드리고 남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 중에 제사장의 몫이 더 거룩한 것이다(1절). 왜 그럴까?

오용의 여지가 없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 때문이다. (2장 15번 참조)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성이 있을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경고함(레 2:3, 2:10, 6:17, 7:6, 10:17, 14:13, 24:9). 진설병, 향(출 30:36),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들. 원래 거룩의 뜻은 구별된 것을 가리킨다. 특별히 구별하여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란 점에서 보면 남은 것이 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3. 6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5) 무엇을 먹으란 말인가?

제육(7): 속건제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다. 5절의 다는 기름 전부라는 뜻이며 살코기에 포함된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육은 제사장의 수입이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다. 기름진 꼬리에 대한 언급은 주로 양을 드렸음을 암시한다

4.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레니...(7) 일레란 한 가지 예라는 뜻인가?

같은 경우란 뜻이다. 제육을 처리하는 방법이 같다는 뜻이다. 동갑이라는 것을 영어로 'the same age'라기보다는 'of an age'라고 한다. 한 나이가 아니라 같은 나이를 뜻한다.

5. 다음 각각의 경우에 알맞은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1)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얻는 것은?

제육(7)

2)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얻는 것은?

가죽(8)

3)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얻는 것은?

화덕에 구운 소제물, 솥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9): 이것은 소제물의 일부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이다.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장의 소제물은 전부 불살랐다(6:22)

4)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는 제사장도 얻는 게 있는가?

소제물 중에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10): 기름 섞은 것은 화덕, 솥, 번철에 조리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마른 것은 추수한 농산물 그대로란 뜻이다.

5)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얻는 것은?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12), 유교병(13)

6)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제사 드리는 것에 비례해서 누가 소득이 제일 많을까? 또, 누가 제일 적을까?(특히 소제에서)

고소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저소득: 하나님. 소제물 중에서 일부를 조리하고 그 중 일부를 기념물로 드렸으니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번제에도 두 종류가 있었다. 조석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전체 회중의 속죄를 위한 상번제(민 28:2-8)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가죽을 얻을 수 있는 번제는 이 常燔祭가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결심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이다. 이런 번제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사람의 번제: 개인적인 성격의 특별 번제를 뜻한다.

7.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에 대하여 제사장이 경계해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

제사를 드리는 동기(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제물에만 관심을 두는 일: 흔히 우리나라 제사나 무당이 굿하는 것을 비꼬아 하는 말처럼 '살만 새면 굿감 대추 내꺼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보고 저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을 삼키면 될까 안될까? 본래는 저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내 돈 내 쓰는 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는 위험한 말이다.

8.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결코 갖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드리는 이 제사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 아니냐?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제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결코 나의 선심이 될 수 없다.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나? 이런 위대한 분들이 가끔씩 생기는 현실이 두렵다.

9. 희생제물을 거룩한 곳에서만 먹고(6), 제사장에게만 주고(7, 9, 14), 남자에게만 허락하고(6), 저장하지 못하면(15-16), 다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이 곳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족, 여자는 언제 고기 맛을 보나?

제사장에게만 주는 것은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남으면 불살라야 한다(17) 여자를 포함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양이 많은 제사의 제물이 따로 있다. 10절과 31절이다. 혼돈 가슴과 뒷다리는 가장 맛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0. 속건제를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번제와 소제(8-10)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 나온 김에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느라고.

11. 화목제도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세 가지: 감사제(12, 15), 서원제, 자원제(16)

12. 앞에서(3장) 언급했던 화목제에 대하여 다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종합해서 본다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물은 무엇 무엇인가?

감사제 희생의 고기(12, 15),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유교병(11-13): 3장의 화목제는 제사의 중심이 되는 희생제물이 된 짐승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후속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제물에 대한 설명이다.

13. 번제의 경우에는 이 제물들을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랐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소제물 전체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줄어 올렸다가 내리고)로 드리고(14), 내장과 기름은 화제로(3:3-5), 희생제물의 가슴은 요제로(30), 우편 뒷다리는 거제(32)로 드렸다. 사람이 먹지 않는 부분만 화제로 드렸고 사람이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제,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었다.

14. 제사에 도무지 사용하지 않던 것을 화목제에만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는 것(출 12:15)이었는데 화목제에는 왜 허용했을까?

유교병: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었다. 공동식사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허락한 셈이다.

15. 화목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당일에만 먹어야 하는 경우(감사제)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서원이나 자원제)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감사제(받은바 감사)가 서원제(받을 것을 바라고)보다 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루도록 했다. 제물 자체는 같은 것이다. 부패 때문이라면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유월절 양고기도 그 날 당일에만 먹고 남은 것은 소화하도록 했음을 기억하자. 어떤 자세로 헌금과 예배를 드려야 할지 생각해보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16. 만약 어떤 제사장이 희생제물로 식사를 하고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자신이 부정하지 않은 지를 살펴야 한다: 제물이 부정한 것에 닿았는지 살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다. 결국 이런 규정을 두신 것은 제물이 아파워서가 아니라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까다로운 규정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라는 메시지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식사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라고 불렀다. 할례도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간절한 명령, 부탁, 애원이다.

17. 기름과 피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삼겹살이나 사슴피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다.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살찌는 것을 싫어해서? 피를 마시는 것이 보기 흉해서?

기름은 힘의 원동력이고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힘의 근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흠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령(움직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죽은 것과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을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다(24)고 하신 것으로 보아 기름 자체가 아파워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 사슴피가 보약이라던데 먹으면 안 되나? 충이 있다, 마시다가 목구멍이 막힐 위험이 있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구약의 이런 율법은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굳이 그것이 보약이 된다면, 이런 성경말씀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 화목제에 대하여 3장, 7:11-14, 15-21에서 언급하고 28절에서 또 화목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되나?)

화목제 희생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뭇과 제사장의 뭇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1) 가슴: 요제로,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

2) 기름: 화제로

3)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 거제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소독

19. 혼돈 가슴과 든 뒷다리'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 이걸 현대식으로 가장 짧은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아니면 이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면 될까?

교역자 사례금: 목사님 사례금 봉투에 쓰면 제격이겠다.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득이다.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것이다.

20.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제사(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가?

예배와 제사의 기본은 순종이다. 내 마음대로 드리면 도리어 화가 된다. 제사를 받는 분이 요구하는대로 드려야 한다.

21. 마지막 두 구절은 이 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각종 제사 제도에 관한 마무리: 5대 제사와 그것들을 준 장소, 즉 1장-7장의 마무리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계속되리라는 뜻이다.

위임제: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성직임명을 위한 특별 제사이다(출 29:19-28).

레위기 8 장

1. 출애굽기 앞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낸다
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처음에는 그리 쉽게 순종하지 않았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 떠밀려서 순종하였을지라도 그 순종이 그를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다. 본문에서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고 한다(4, 9, 13, 17, 21, 29). 자신만 순종할 뿐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다(36).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데 있다. 자유하는 인간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설계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유하는 기계를 가리켜 고장이라 한다. 어항을 떠난 자유로운 고기는 죽음 이요, 철로를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기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기는 자유롭기는커녕 불행할 뿐이다. 가정을 떠난 어머니의 자유로움은 방탕이요 비극의 극치이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2. 복습 삼아서 제물로 제사의 종류를 생각해 보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속죄제, 혹은 화목제: 본문에서는 속죄제를 뜻한다(16). 기본적으로 속죄제와 화목제는 제물이 거의 같다. 본문의 화목제에는 기름진 꼬리와 소제물이 추가되었다.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구별>

번제: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단에서 사른다.

소제: 곡식의 일부를 단에서 사른다.

속죄제: 사람이 먹지 않는 기름부위만 단에서 사르고 나머지는 소각한다.

화목제: 사람이 먹지 않는 기름부위만 단에서 사르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는다.

3. 위임제는 5대 제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유는 위임제가 독립된 제사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여러 제사의 종합인 셈이다. 무슨 제사가 어떤 순서대로 드러졌는가?

속죄제(용서: 14)→ 번제(헌신을 다짐: 18)→ 화목제(하나님과 화목: 22-29)→ 소제(감사의 삶: 26) 위임식은 용서, 헌신, 화목, 감사가 어우러진 잔치인 셈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위임식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러보자.

4. 위임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회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점을 잊어버리고 나머지 절차나 사소한 일에 온 신경을 다 쏟는 일이 흔히 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의복(출 28)과 관유(출 30), 수송아지(속죄제 用)와 수양 둘(번제 用 하나, 화목제 用 하나)과 무교병 한 광주리(소제 用)

5.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위임식은 14절부터 시작된다. 그 앞부분은 위임식 준비에 대한 것인데 간단히 요약한다면?

1) 물로 씻기고, 2) 의복을 갖추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겹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모하게(정성과 온갖 재주를 다 들여서 아름답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홍패를 붙이고 홍패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패를 붙였다.

아들들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웠다.

3)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단(장막 바깥에 있는 것이다)과 아론의 머리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6. 아론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겹옷을 입혔지만(7) 아들들에게는 속옷만 입히고 겹옷을 입히지 않았다(13). 왜 이러나 창피하게스리? (출 28장 참고)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런닝셔츠나 팬티가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치마처럼 긴 옷(tunic ↔ robe)이다. 번역상의 문제일 뿐이다.

7. 속옷에 띠운 띠는 허리끈이다(7). 겹옷 위에 입는 에봇의 기모하게 짠 띠는 무슨 띠일까?

옷에 부착된 엘빵과 허리띠: 에봇은 입는 옷이 아니라 긴 조끼나 짧은 앞치마처럼 가슴에 걸치는 옷이다. 가슴치마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몸에 고정시키려면 가슴에 묶어야 한다.

8. ()는 ()에 붙이는 이중으로 된 사각형의 탈착식 주머니인 셈이다. 전면에는 작지 않은 열 두 보석이 박혀있다. 그 주머니에 우림(빛)과 둠밈(완전)을 넣었다.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아마 주사위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다.

홍패, 에봇

9.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로 세우심: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일을 감당했다.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말이 되고 하지만 너무 피상적이다.

10.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함이 하는 이 절차 중에서 모세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룩하게 하는 것(10, 11, 15, 30) 깨끗하게(15)하는 것도 거의 같은 의미다.

우리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의 세례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 특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의 본래 의미가 구별이다. 믿은 후에 변화를 받는 문제로 고민이 많을 수가 있는데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다. 행동의 변화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비록 행동의 변화는 느리고, 심지어 변화가 없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점차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본문의 위임제에서 드러지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가 원래의 시행규칙과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지 않고 모세가 집행한다는 점: 아직은 제사장이 없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모세가 짐승을 잡는 점도 마찬가지다.

화목제의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위임제에서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다(27-28).

12.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12, 30). 물론 방식도 다르다. 왜 그럴까?

아론의 역할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역도 해야 하고 백성들의 대리자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성의 대리자일 경우에는 피로 속함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대리자일 때는 기름부음을 받는다. 짐승의 피로 자신을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피를 남을 위해서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메시아 개념이 등장한다. 기름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여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13. 제사 드리는 단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가?

피를 바르고, 쏟아서: 피를 쏟아서 속하여짐으로 거룩하게 된다(15)고 한다. 생명을 버려야 속할 수 있다는 원칙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원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신다. 벗어날 때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신다.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14. 피를 뿌리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다.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23-24) 뿌렸는데 왜 이렇게 피칠갑을 하는가?

피를 흘려야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히 9:22): 성경은 온통 피로 물든 책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 분이 흘리는 피로 칠갑이 된 책이 성경이다. 그 분이 죽어야 그 피로 우리를 속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들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끝 부분이므로 온 몸을 성결케 하는 의미와 들는 것과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 즉 모든 행위를 성결케 하는 의미라고 해야겠다.

15.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는 모습은 엄숙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구름이 뿜뿜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명하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주신 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에서 그런 엄숙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여호와와 부탁을 지키라(35): 학기 초에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이 때로는 가장 온화하고 좋은 선생님이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본심과 상관없이 위엄을 갖추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선생님의 체면과 당당함을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함께 땀 흘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6. 고대 왕들의 계약을 가리키는 말 중에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큰 왕이 정복한 나라의 작은 왕과 언약을 체결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한다. 큰 왕은 온갖 위엄을 다 갖추고 위세를 부리고 작은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서약을 행한다. 그러나 그 예식이 끝나면 장소를 옮겨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선다. 어디서 무얼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위임식 제사에서 고기와 떡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31).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온갖 권위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와 통하는 것이다. 출 24장에 좋은 예가 있다. 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을까?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7. 위임식 제사의 부칙이 있다. 무슨 내용인가?

위임식은 7일 동안, 그 동안 외부 출입 금지, 회막 문에서 먹고 마실 것.

18. 제사를 주관한 모세가 제물의 가슴을 받았는데 이것을 모세의 응식이라고 한다(29). 응식(應食)이란 직무에 응하여 받는 당연한 몫이란 말인데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인도하거나 헌신예배를 드리고 사례를 받는 것도 이런 응식일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친 대가를 받는 것조차 응식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만 제대로 된 응식이 아닐까? 목회자가 돈

에 관심을 적게 가지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매달 지급하는 사례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강의나 주례의 사례에 맛을 들이면 아무래도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돈에 대한 유혹도 맛을 들이면 아주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9 장

1. 칠일간의 위임식 제사가 끝났으니 제 팔일에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위임식이나 시무식):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2. 그 때에 벌써 장로가 있었나(1)? 교회는 없었을텐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광야교회가 있었나?

여기서 장로란 현재 장로회의 장로가 아니다. 그냥 백성들의 지도자 혹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구약의 장로란 말은 연장자 혹은 지파의 어른이란 뜻이고 신약의 장로는 교회의 어른으로 목사와 현재의 장로역을 다 담당한 셈이다. 현재와 같은 장로제도가 확립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생겨난 제도이므로 500년도 안 된다.

3.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데 첫 제사치고는 너무 과제가 많다.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제사를 드린 순서대로 제사 재물을 정리하고 각각의 재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리해 보자.

흠 없는 송아지(2, 8):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

흠 없는 수양(2, 12): 자신을 위한 번제물

수염소(3, 15):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 (11번 질문과 관계있음)

일년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3, 16):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물

수소와 수양, 기름 섞은 소제물(4, 18): 화목제물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렸다(22). 그것은 곧 회개와 죄사함에서 헌신에의 결단과 실천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평화의 체험으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우리의 예배에도 바로 이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사 종류에 따른 제물의 크기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이 가장 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가장 작다. 그나마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작은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을 백번 고려한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화목제물은 자신들이 나누어 먹을 것이란 점에서 큰데 속죄제물이 가장 작은 것은 고마운 일이다.

4. 8장의 위임식 제사는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제 누가 그 일을 하는가? (15번과 다소 중복임)

아론: 위임식 제사까지는 모세가 임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정식으로 제사장이 생겨난 이상 모세는 제사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아니,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왕이라도 제사를 직접 집전할 수 없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고, 얼마나 고생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물러나야 할 때는 깨끗이 물러주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수결이 무시되고 스스로 모세같은 인물이라고 여기는 한 두 사람의 독단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4)고 했는데 실제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가?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심(6, 23):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셨다고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만 바라보면서 만족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뵈을 눈도 없고, 자력도 없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시려는 분이시지만 아직은 직접 대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6.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자신을 속하는 제사이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또 누구를 속하는가?

백성들(7):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일도 온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다. 대제사장이 자신을 속하는 일이 백성들을 속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도자는 자신을 정결케 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반면에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는 반대로 그 여파가 온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레 4:3).

7. 7일간 위임식을 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7)? 아니면 밥새 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렇게 많은 제사도 죄를 다 사하기에 부족함을 보여준다: 제사제도는 임시방편으로 준 것이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향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 10:4)

8. 제사를 드리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4)이라고 한다. 제사와 대치된 예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유도 없이 엄숙하거나 자신의 흥에 겨워 즐거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9.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죄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인가? 아니라면 자신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제사장도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하나님의 노력일 뿐이다.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히 9:25-26, 10:11-12).

10. 복습인 셈인데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단 밑에 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름과 콩팥과 간 찌꺼기를 사르는 것은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고기와 가죽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심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아까운 가죽을 이렇게 불사르다니? 가죽을 항상 그렇게 했는가?

일반 번제의 경우에는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몫이었다(7:8). 다만 제사장의 속죄제일 경우에는 진 밖에서 태웠다.(4:311-12, 9:11)

11.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송아지를 잡았는데(8)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는 무엇을 잡았는가? 레 4:13-14와 비교해 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지 생각해 보자.

염소(15): 4장의 속죄제는 특별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하는 제사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한 죄가 있어서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임직에 따른 정결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목욕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정도이다.

12.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불사르라고 한다. 이 아침 번제물이 무엇인가?

조식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다(민 28장): 소제 곧, 화목제도 번제없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속죄 뿐만 아니라 화목이나 감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없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보여준다.

13. 이 기록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은?

여호와와 명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6, 7, 10, 21):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시의존적인 삶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과학, 의학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가법계 보라는 뜻은 아니다. 과학, 의학, 물리학, 생리학... 모두 하나님의 자연법칙 안에 있는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자연 법칙 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사람이 바다 위를 걷거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면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한다. 이게 조금 빛나가면 신비주의나, 맹신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

14.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물일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일까? 본문에 있는 표현을 찾아보자.

여호와와 명대로(7): 제물도 중요하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와 명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울은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을지라도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여호와와 명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섬겨야 한다.

15.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간 일은 이 때 한 번 뿐이다. 이 사건 이후 이 두 사람은 회막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까?

모세는 더 이상 회막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론만 들어갈 수 있다: 회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아론에게 넘어갔다. 회막의 모습을 보고 지은 것도 모세요, 그 동안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이 모든 영광을 아론에게 넘겨주었다. 아론은 이 때 처음으로 들어갔지만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제부터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이다. 자연스레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는 모습이 아름답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노력하고 애를 쓴 분들이 뒤에 들어온 일꾼들을 격려하고 밀어주기보다는 텃세를 부리는 바람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20절의 가슴과 21절의 가슴은 다른가?

레위기 10 장

1.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기는 맞는데 어딘가 좀 피상적이다. 좀 더 근원적인 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점(3) 나답과 아비후가 꼭 죽어야 했을까? 그만큼 일로 죽일 것까지야 없지 않았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곤, 웃사가 죽은 것도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해당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더욱 경건함으로 섬겨야 한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수업을 잡아 당겨도 귀엽고, 아무데서 똥, 오줌을 싸도 귀엽지만 어른이 되어서 그래도 귀여운 것은 아니다. 자라나면 어른을 섬기는 방식도 다르지 않은가?

2. 여호와 앞(1)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여러 곳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앞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회막 안의 분향단: 회막 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성소(작은 안쪽 방)와 성소(큰 방)이다.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것이다.

3. 시골에 넓은 도로가 처음 뚫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지만 길을 건너는 사람의 의식은 예전의 시골길을 걷던 그 의식 그대로였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 이야기와 두 사람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새로운 교통 법규를 알고 지켜야 했다. 새로 제사장 임무를 맡은 이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했다. 일단은 순종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했다.

4.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으리라(3)는 것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내게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해도... 이런 표현은 나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쓰인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다고 해도 나는 내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다. 두렵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비록 매맞고 아플지라도 내게 대한 사랑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행복한 기억이 있는가? 존경하는 선생님께 실수를 해서 뺏을 줄지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않으시면 다행인가? 버림받은 느낌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오히려 야단맞고 매를 맞으면서 여전히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심을 느끼며 기뻐했던 경험이 없는가? 없다면 불행하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이 없었다는 뜻이다.

5.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불은 특수한 불이다. 어떤 점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2, 9:24) 사람은 죽었지만 옷은 태우지 않았다(5)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나무의 불처럼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6.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을 메고 나온 미사엘과 엘사반의 사촌이다. 맞는가? 왜 이들에게 메고 나오라 했을까? 형제가 있는데?

아니다. 아론과 사촌이다: 오촌 아자비가 되는 셈이다. 4절의 너희 형제란 말은 정확하게 손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아마 형제보다 좀 더 냉정하게 시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자칫 슬픔에 이기지 못하여 엘르아살이나 이다말도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6). 더구나 만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레 21:10-11) 라고 하였다.

7. 결국, 미사엘과 엘사반은 제사장이 아니면서 회막에 들어간 셈인데, 그래도 괜찮은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 때 강대상이 있는 곳은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을 올라가야 한다. 비슷한 원리로 특별한 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아니라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아직 이 일을 감당할 다른 제사장도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8.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수도 있다(6). 왜?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속죄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사장의 속죄제는 온 회중의 속죄와 같은 제물이 필요했다.

9.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백성들은 슬퍼해도 되지만 형제간인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은 안된다. 무슨 법칙이 이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와 관유가 너희에게 있는 족(7) 기름부어 새움을 받은 제사장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의 죽음을 슬퍼함으로 인간적인 정를 표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분노해야 한다. 형제를 잃은 슬픔에 제사장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회막에서 나간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형제애마저 끊고 무지막지하게 순종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란 것은 백성들의 슬픔을 허용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10.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아론의 반응은?

모세는 순응, 아론은 잠잠: 일의 처리는 이제 아론의 몫인데 아직은 모세가 해야 하는 모양이다. 아론이 잠잠한 것은 일단 착잡한 심경 아닐까?

11. 지금 이 판국에 잔소리(?) 할 대인가(8-10)?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 독주나 포도주 때문일지도 모른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기 때문이다. 적어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나도 인간인데' 하기보다는 사역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린다는 각오가 더 필요하다.

12. 독주나 포도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다들 즐기는 것인데 제사장만 못 먹는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먹지 말라(9)

회막의 봉사와 관계가 없을 때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유월절 출제에는 독주도 사용했다.(신 14:26)

13.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 드리는 것이다. 다른 할 일은 없었을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임무였다(11). 목회자의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교회 상황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중 소제의 남은 것이다. 누룩도 넣지 말고 아무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맛 없겠다: 다양한 음식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딱해 보인다. 당시의 눈으로 보아도 그럴까? 조금은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음식을 즐기는 시대이지만 음식이 즐길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근거였던 시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15. 속죄제의 희생 중에서도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아론이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염소는 먹어야 하는 것이었다. 속죄제물 중에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은 어떤 제사인가? 본문의 표현대로 답하시오.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제사의 제육(18) 속죄제 중에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희생

16. 제사 드리고 난 일부를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기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문은 달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는 것(17) 먹는 행위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될까? 먹어서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17. 아론이 어떤 생각으로 당연히 먹어야 하는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19) 고의로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자신이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겼을까?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다. 다른 잡신들이나 우상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법도 동기보다 규정이 더 중요시하다보니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 거꾸로 사람을 잡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다른 예로 삼상 15:22, 호 6:6을 들 수 있다.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결과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아무튼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18.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1-2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한다: 교회 성장 전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말씀의 언저리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

6절: 혈통이나 인간적인 정리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인간의 정리를 다 끊고 세속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사사로운 일에 매여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10절: 욕망을 절제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타의에 의해 강요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거룩한 곳에서(12, 13, 14) 먹어야 한다면 다른 가족들(여자들)은 못 먹잖아!

레위기 11 장

1. '고하여 이르다'라는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를 연속시키는 히브리인의 독특한 어법이다. '고하여 가로대, 여짜와 가로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뜻이다. 이전의 표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아론에게도 말씀하심(11:1, 13:1)

비록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정식으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신다. 비록 위임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아론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른다!

2.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1) 먹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짐승들의 2)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3) 왜 그런 짐승들만 먹으라는가?

1)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2) 대체로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며 평화로운 짐승들이다.

3) 구별된 삶과 묵상하는 삶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것은 요구하신다: 먹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갈라지는 것의 의미는 거룩(구별)을 뜻하고, 되새김질은 묵상을 뜻한다. 그렇게 하노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반: 토끼 비슷한 초식 동물

토끼: 실제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냥 모양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3. 우리말에도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었다. 기름기가 많아서 상하기도 쉽고, 설사를 잘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사는 모습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본문은 새김질을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할 때는 굽이 다른 이유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분명히 돼지고기는 먹어도 본전을 찾기 어려웠다. 워낙 고기 구경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잘 먹는가? 또 중국 사람은 온통 돼지고기만 먹는 것 같던데?

4.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생각해보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때로는 물을 거슬러 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타의에 휩쓸려 가는 삶은 안 된다.

비늘이 없는 것은 땅에 기는 짐승과 비교할 수 있다(뱀장어류). 진흙에 깊이 박혀 있거나(조개류) 물 밑 깊은 곳에서 공격적이고 음흉하다. 미꾸라지의 파고 들어가는 성질은 유명하다. 끓는 물에 미꾸라지와 두부를 함께 넣으면 미꾸라지가 두부에 파고 들어가서 익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백집에 속을 넣은 것같이 된다는! 반면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대체로 수면 가까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산다. 가끔은 수면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다.

5. 새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왜 그랬을까?

1) 맹금류: 독수리, 매, 솔개: 이들이 사는 모습은 잔인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약탈을 일삼는 악인들의 모습을 닮았다. 짐승들 중에서도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지닌 짐승만 먹으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2)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사는 고독하고 슬픈 새: 올빼미, 당아새(펠리칸), 까마귀: 홀로 고독을 즐기며 시간만 나면 자신을 비하하는 삶의 자세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형제와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

3)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 까마귀, 울음, 대승: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 부정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4) 우상숭배와 관련된 새: 이방인들이 소위 길조나 흉조라 해서 길흉을 점칠 때 사용하는 새.

5) 양다리 걸친 모습을 지님: 박쥐(19):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6. 곤충 중에서 먹을 만한 것 무엇인가? 왜 그럴까?

날개가 있고 땅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 날개가 있는 데 기는 것은 가증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맥빠진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뛰는 다리란 땅에서 살되,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땅에 발을 디디고 하되 빠지지 않는 말라는 것이다. 귀뚜라미는 날개가 없음에도 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7. 치마가 여자 옷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본래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입도록 하는 것은 행동을 다소 제약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치마를 입혀놓으면 얌전해지니까. 레위기를 보다가 왜 이런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

는 걸까?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심지어 주검마저 손대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 치마 입은 여학생의 움직임이 다소 압전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자세가 압전해지지 않을까? 신중하고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다.

8.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어떤 특징을 지닌 짐승인가?

소리없이 적에게 접근하는 동물들: 고양이, 곰, 호랑이, 사자, 개, 늑대. 음흉스럽다. 발바닥으로 소리없이 접근하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짐승들이다. 이 때 몸을 땅에 거의 밀착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육식동물이란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9. 한 때 토룡탕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몸에 종단다. 화장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기도 하는 유익한 동물이다. 그런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유익한 동물을 왜 부정하다고 할까?

지렁이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주범이 뱀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이 땅에 속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창문을 아름답게 채색한 것을 스테인드글라스라고 하던가? 개혁신교에서는 절대로 창문을 그렇게 장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채색하듯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리창을 장식하는 것과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짐승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처녀를 물레방앗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10.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1)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8, 24, 27, 31, 39시간이 해결사)

2) 주검을 옮기면: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25, 28, 40); 한번만 말해도 뿔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좋다. 많은 경우에 공부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단순한 반복!

3) 목기, 의복, 가죽부대, 그릇: 물에 담근다(32)

4) 질그릇, 화덕, 질탕관: 껌다(33, 35) 흡수성 때문이다. 같은 부정함일지라도 아예 흡수하여 젖어 버리는 경우에는 깨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스쳐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더욱 감사하다.

11. 닿아도 부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 두 종류를 찾아보자.

샘물이나, 방축물 용명: 만약 이것들이 부정을 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샘물의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부정해지는지 한계를 설정하기조차 어렵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규정을 주시면서 인간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을 종자, 마른 음식(34절의 역, 축축하거나 마실 것이 아닌 것)

12. 주검이 닿아도 부정하지 않다는 마른 종자와 부정하여지는 물에 불린 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흡수성(침투성)의 차이: 성경이 말하는 부정이란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무리 닿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부정한 것이 아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달리 부정한 여인이나 세리에게 가까이 해도 괜찮은 것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는 부정한 환경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는가? 그 차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아무 곳에 던져 놓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자.

13.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거나 짐승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쩌다 차에 짐승이 치이는 경우에는 황재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성경은 주검을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걸까?

죽음이 창조시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다. 끔찍한 일이다.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병의 감염 경로: 더운 지방에서 쉽게 부패하는 관계로 병의 감염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위생상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14. 먹을 만한 짐승의 주검도 부정하다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다 부정할 것 아닐까? 여차피 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것인데?

자연사(늪에서 죽은 것이나 병사 포함)인 경우를 말한다: 먹기 위해서 도축한 것이 아니다. 자연사인 경우에는 도축한 것보다 위생상의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15. 29-30과 41은 같은 내용이다. 단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정한 것들의 이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록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땅과 무슨 원수가 됐나? 왜 땅에 기는 것은 모조리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가 부정하더라도 정한 것이 있었는데 땅의 기는 것들은 모조리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자신의 백성이 뱀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땅이나 땅을 기는 짐승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류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다. 뛰는 다리나 날개를 가지고 기는 것과 아예 없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쁠까?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니고 다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은? 뛰는 다리나 날개를 가지고 기는 것도 나쁘지만 아예 없는 것은 더욱 나쁘다. 행동이 개차반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래도 낫다. 가능성이 더 있으니 말이다

16. 본문에는 많은 생물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종류는 무엇인가?

어류: 언어적 한계와 어업을 천하게 여긴 탓이다. 지금도 어류를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 민족이 많다. 그럴수록 아예 단어 자체가 없다. 예수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귀한 사역을 맡기신 의미가 담겨있다.

17. 종교적, 상징적, 위생학적 이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정하다고 한다.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두어서 자신을 부정케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11:45): 자기만 거룩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우리와 그 분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대답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새로운 가문에 시집온 사람은 그 가문의 전통이나 분위기에 젖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원리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때문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중요시해야 한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문이다. 서문없는 십계명은 십계명이 아니다.

18. 이런 정결법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의 본체가 되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니저인 셈이다. 주인공이 없던 시절에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으나 주인공이 등장한 이상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정결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되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 15:11-20, 막 7:19, 행 10:15)

19. 아마 군에서 한창 훈련을 받던 때였던 것 같다. 갑자기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았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라는 명령이 곳곳에 있었다. 성경에 비교적 익숙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거룩이란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생략해도 가능함)

거룩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다른 뜻으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척하는 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훈련 중인 군인은 도무지 사람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짐승처럼 취급되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났나 보다. 손에 오물을 묻혀가면서도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려 가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시절이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다.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 낯설다. 하나 하나 기억하는 것은 무리이고 대체로 특징만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어응: 당아새과(펠리칸)의 큰 물새, 혹은 바다독수리의 일종

다호마스: 매의 일종(영어 성경은 *nighthawk*) 야행성으로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노자: 가마우지와 물새

당아: 펠리칸

올응: 독수리의 일종, 썩은 고기를 먹는다.

대승: 오디새, 여름 철새로 뾰뾰하게 세워진 깃털이 있으며 분노 더미처럼 더러운 곳에서 유충과 작은 곤충을 먹고 산다.

합개: 도마뱀 모양의 파충류(*gecko*)

육지 악어: 도마뱀의 일종

수궁: 도마뱀의 일종

사막 도마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마뱀

칠면석척: 카멜레온

레위기 12 장

1.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 (경도할 때와 같다)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40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27일 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80일 간의 휴식.

2. 해산한 여인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평소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

좁은 의미로 성물은 성소에 들어 있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가리킨다. 성소도 마찬가지로 넓게는 예배나 제사를 위해서 설치한 성소 주변의 뜰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예배까지 참석하지 말라는 명이다.

3. 아들이든 딸이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걸까? 예전 풍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출산하면 때문에 걸어두는 것을 금줄이라 한 것과 닮은 점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역할: 기본적으로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결케 되기까지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열외라는 표현과 다름 아니다.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위하여 심지어 남편조차 접근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마저 면제다. 부정한 여인은 합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상책이다. 산모가 따뜻한 방에 누워서 바람도 쇠지 않고 한 달(40일)을 지나는 것이 몸을 회복하는데 아주 요긴하다. 이 때 산후 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병을 얻게 된다. 무리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는 것보다 아예 부정하다하여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출산한 본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 출산한 여인이여! 한달 동안 여왕처럼 지낼지어다. 이 말과 한달 동안 부정하다는 말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군대에서 한창 고생스럽게 훈련 받는 중에 험한 말로 너 이리 나와봐! 하면서 빼내서 쉬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는 훈련병을 만나서 말이다. 다만 볼러낼 때 말을 좀 거칠게 해야 한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한(창 3:16)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 출생 자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복이기도 하면서 고생의 시작이기도 하다. 출생을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지만 타락한 이후 고통이 더해졌다.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에덴동산의 회복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은 떠나버린 인간을 다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다. 바울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다(갈 4:11). 범죄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함을 차마 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다. 여인들은 뱀의 머리를 부술 후손을 낳는다는 생각으로 해산의 고통을 이겨야 했다. 이 고통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은 곧 구원의 길이기도 하다(딤후 2:15). 그런 만큼 부정한 기간이란 해산의 고통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범죄한 이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편치 못한 심경을 담고 있는 기간이다.

4. 여자를 낳으면 부정함과 산혈이 깨끗하여지는 기간이 왜 더 길까?

남자를 출산한 경우와 여자를 출산한 경우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아마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 차이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친구 부인이 둘째 딸을 낳을 때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포항까지 와서 병실을 지키다가 딸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제주도로 돌아가 버렸다. 남편이란 친구는 날마다 술집에서 헤롱거리고 산모는 산모대로 울어서 눈이 툭툭 붓고... 어쩌면 딸을 낳은 뒤의 이런 정신적인 차이조차 감안하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용감하게 따먹은 것이 여자였음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쪽(다른 민족)이나 마찬가지다. 레 27:2-7을 보면 사람의 값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런 점이 감안되었을 것이다.

남자아이는 할례 받는 대신 여자아이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드려야 할 유향이 없으면 다른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레 2)을 감안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자아이라도 어릴 때 할례를 받은 셈이다.

5. 아이들의 포경 수술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 괜히 쓸데없이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건강상 해야 한다고 떠들어서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게 할 때는 언제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짓이라고 하지 말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건강상 이 유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 고민할 것도 없겠다. 일생 중 고통이 가장 적고 수술하기도 수월한 때가 언제일까?

생후 8일 제: 아픔도 적고 피도 쉽게 응고된단다.

6. 경도 즉 생리에 대하여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칠 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

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레 15:19)이라고 한다. 생리현상을 불결하다(2)고 말하는 것은 종족 보존에 대한 사명을 지닌 여성에 대한 모독 아닌가?

외형상 피 흘림을 부정한 것으로 다름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본인 스스로도 불결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됨으로 몸을 정하게 하겠지만 부부관계마저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자의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성욕으로부터 일정기간 피할 수 있다. 세상의 좋은 것은 다 먹었을 왕들이 일찍 죽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많은 여자들을 거느린 탓이다. 죽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종족 보존에 힘쓰는 것을 일정기간 강제로 쉬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생리도 소변 보듯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더라면 남자들의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축되었을 것이다.

7. 정하게 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한이 지나야 하고 기한이 차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정결케 되기 위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차면 저절로 정결케 된다. 다만 자녀를 낳은 여자의 경우 부정한 기간이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 기간이 본인의 건강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8. 기한이 차거든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하여 짐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한다. 가난한 여자는?

아무리 가난해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힘이 미치지 못하면 짐 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헌금할 돈이 없는데 10원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 그 10원이 진짜 10원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작은 것도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들끼리 이런 표현이 사용될 때는 10원이 문자대로 10원이 아닌 게 문제다.

9. 감사와 경배의 의미로 드리는 번제 예물은 어린 양이고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은 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물이 바뀐 느낌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몸값과 그 용서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는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제물이 바뀐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만약 속죄제물이 어린 양이라면 가난해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제물을 함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다. 최소한의 제물로 속죄의 길을 열어줄테니 누구나 오라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된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다. 그런 다음 감사와 예배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서 드리라는 것이다.

10. 해산한 여인의 부정은 아이 때문일까? 피를 흘렸기 때문일까?

피를 흘렸기 때문: 경도할 때, 산혈이 깨끗하리니 등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해야겠다.

출생은 누구나 기뻐하는 경사스런 일이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범죄한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살던 우리 조상들의 수명을 십분의 일로 단축시켜버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땅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우리 인간들끼리 본다면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시 51:5). 우리 인생 자체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산 자체는 부정한 일이다. 인간적인 삶에서 볼 때는 물론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면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레위기 13 장

1. 13장은 한센씨 병이라고 부르는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은 어디인가?

45-46: 병자의 처신에 대한 규제

2. 한센씨 병을 진단하는 데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단하는가?

7가지: 환부(1-8), 난육(9-17), 종기(18-23), 화상의 상처(24-28), 움(29-37), 머리의 색점(38-44), 의복(47-59)

3.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문둥병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 장에서 문둥병이라고 판정한 것 중에 현대적 개념으로 문둥병이라고 하기 곤란한 것이 있을까?

웃이나 가족에 나타나는 이런 류의 증상을 우리는 곰팡이라고 한다(47-59): 성경의 문둥병이란 말은 일반적인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류도 포함하는 말이다. 과거 우리네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앓은 병이 속병이었다. 이 속병은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었을까? 핫병, 골병, 암, 심장병...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표현을 현대의 잣대로 정확하게 일치시키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니다. 개나리, 벚꽃, 멸치... 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미국 사람에게 물었더니 잘 모른다. 단어가 있기는 해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어로 옮기는 일은 정확하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옮겨지는 것이다.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4. 한센씨 병의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붉은 반점, 흰 반점)이 생김(38)

5. 한센씨 병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흰 털과 우묵함(3), 흰 점과 흰 털과 난육(10), 색점과 퍼짐(19-22): 색점은 의심요소는 되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현대의 판정법은 피부에 우묵한 반점이 생겼는데 바늘로 찔러보아서 감각이 없으면 이 병으로 판정을 했다. 천형으로 불렸던 병이다.

6. 병이 났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나?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의 판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도 제사장이 나왔다고 판정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다.

7. 멀쩡한 사람이 문둥병으로 의심을 받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옷을 빨아야 하는 것(6, 34)은 더 억울하잖아?

왜 그렇게 의심을 받았는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평소 위생에 신경 써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에 혐의를 받을만한 일조차 없도록 노력하자.

8.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하였으면 금고하지는 않을 것(11)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금고란 격리시킨다는 의미인데 병의 경과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4-5절의 대상이 아니라 45-46절의 대상이란 뜻이다.

9. 별로 좋지 않은 듯한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세밀하고 길게 서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장의 판정이 한 사람의 신상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준다. 소홀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완전하게 판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3번이나 세밀하게 살피는 데 14일 걸린다(4-6, 26-28, 31-37, 50-51). 사람들은 남의 일을 자기 생각만으로 쉽게 단죄하거나 단정짓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병을 다루듯이 함부로 단죄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남의 일에 대한 원인을 함부로 분석하지 않아야 한다. 판사나 의사도 이런 정신으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장이 별로 의미도 없이 길다고? 본인이 이 병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았다면 느낌이 다를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잘다고 한다. 자기 아이의 답이 꼼꼼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는 분이 좋을까 아니면 대범하게 아이를 놓아두는 것이 좋을까 잔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잘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10. 한센씨 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고 한다(13). 진짜 큰 도둑은 영웅 대접을 받는다면데 그런 것인가?

한센씨 병은 원래 몸의 일부분에만 발생하는 데 전신에 퍼졌다는 것은 몸 속의 병독이 외부로 발산되면서 자연으로 완치되는 현상이다. 혹은 온 몸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백반병으로 볼 수도 있다. 속에 죄를 감추어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버리면 정하다?

11.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무서운 것은 언제 저지르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얹어매어 버리는 것이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죄악 속으로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한다. 한센씨 병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당하는 것, 즉 몸 속에 잠재되어 있던 병이 언제 모습을 드러내는가?

종기가 생겼거나 화상으로 피부가 약해졌을 때: 한센씨 병은 일종의 만성 전염병이다. 언제 감염되

었는지, 본인이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있다가 몸의 약한 부분이 생기면 이 곳에서 증상이 시작된다.

12. 옴은 일종의 기생충이다. 무섭게 전염되며 몹시 가려운 특징이 있다. 이것을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30-37) 하나님 말씀이 맞나?

번역상의 문제이다. 머리카락의 털이 빠지는 백선병(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병의 발생을 가리키는데 질병의 이름이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한국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과 성도들이 있었던 특이한 곳이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름을 받은 존 로스 목사란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시에는 한국이 지구의 가장 끝이었을 것이다. 조그마한 민족의 말을 배워서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지구 한 쪽 끝까지 달려와 헌신한 그 분들의 노력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 번역이 어째 이 모양이냐고?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지금도 번역선교회(GBT)라는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낯선 나라에 가서 살며 그들의 말을 배우고 있다. 오직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13. 고의적인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금물이다. 죄에 대하여 지녀야 할 우리의 태도는 본문의 어떤 사람과 같을까?

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가 제사장에게 정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처럼(7, 14, 35) 언제나라도 병이 퍼지면 다시 진찰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지만 항상 죄에 대하여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는 단순한 피부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하다(39)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부정하다면가 하지 않고? 한센씨 병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내부의 병이나 외부의 병이냐는 차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지만 겉테기가 더러워지는 것이야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사람도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데...

15. 본문의 대머리는 몇 종류인가? (재미로)

두 종류: 본문에는 대머리와 이마 대머리로 구분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소갈머리가 없는 경우와 주변머리가 없는 경우로 나누는데?

16. 한센씨 병의 진단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칠 것, 진 밖에서 혼자 살 것: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으면 틀에 맞았다.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17.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런 삶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가?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위생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히 돌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적으로 본다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성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이 병이 발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했고 이런 병세를 보이는 의복은 깨끗이 태워야 했다.

18. 다른 전염성이 강한 병도 많았을 텐데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유독 한센씨 병에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죄가 지닌 속성과 가장 유사한 병이면서 당시로서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다: 창조의 원형을 흉측하게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이 걸리면 혼자서 외롭게 나환자촌으로 떠나야 했다. 남편이 병들면 성한 아내가 함께 와서 사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함께 나환자촌으로 들어가는 예는 없다고 하니까?

19. 베나 털의 씨나 날이 무슨 말인가?

천이나 가마니를 짤 때 가로로 놓는 선을 씨줄, 세로로 놓는 선을 날줄이라고 한다. 위도를 씨줄, 경도를 날줄이라고도 한다.

20. 이 병이 가진 특성 중에는 찢러도 감각이 없는 것, 속살이 터져 나오는 것, 살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런 특성을 죄의 속성과 비교하면 어떤가?

흡사하다.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버린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병이다. 병이 많이 있을텐데 유독 이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병에 대한 교훈이기 보다는 죄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문둥병자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라는 것이다.

색점(色點): 밝은 반점, 혹은 하얀 반점(어루러기)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난육(爛肉): 피부가 터져서 속살이 드러난 것

금고(禁錮): 일정기간 공동체로부터 격리하여 타인과 접촉을 막는 것

복발(復發): 재발

레위기 14 장

- 다 나았는데 왜 제사장에게 데려가는가? 털 나았을 때 데려가서 고쳐준다면 몰라도!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판정만 할 뿐이다.
-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인가 제사장이 환자에게 가는 것인가?
원칙은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야 하지만 부정한 자가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 결국은 제사장이 환자에게 가야 한다(3).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 우리가 올라가서 정하게 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문둥이를 위하여 저주받은 장소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내가 누군데?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저 저주받은 문둥이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 이런 제사장이 요즈음 좀 있는 모양이다.
- 한센씨 병 환자가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정결케 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감을 말해보자. (스스로 본문을 정리해보고 아래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1)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고
 - 2)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 3) 다른 새는 산 채로 들어 놓을 지며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환자를 정하게 한 후에)
 - 4) 환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여기까지는 진 밖에서)
 - 5) 진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유할 것
 - 6) 7일 만에 모든 털, 머리털, 수염과, 눈썹을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
 - 7) 제 8일에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예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310cc)을 취할 것 (가난하면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 (1예바 = 약22리터)
 - 8)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 9)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요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 10)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
 - 11)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
 - 12)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
 - 13)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 14)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희생을 잡을 것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번제)
 - 15)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소감: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가? 정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라는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한번쯤 못 본 채하고 그냥 용서하면 일이 간단할 텐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고도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러나 본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밟아야 할 절차를 예수께서 대신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편해 보일 뿐이다.
- 정한 산 새 두 마리에서 산 새는 산(山)새가 아니다. 산낙지라는 말을 보고 산에 무슨 낙지가 있나?하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산 낙지다. 피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니 헛갈리지! 산 새를 다룰 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어디에 사용했을까?
백향목: 빗자루의 자루 부분으로 썼다.
홍색실: 우슬초를 백향목에 묶는데.
우슬초: 빗자루 모양으로 생겼으니 피를 묻혀 뿌리기에 좋다.
- 잡혔다가 놓임을 받은 새는 다른 새와 쉽게 구분이 된다. 왜?
피가 묻었으니까: 피물은 새는 자유를 찾았다. 성도는 피물은 새여야 한다. 새롭게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누가 보아도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 수 있다. 창공을 나는 새는 죽은 새를 잇을 수 없다. (홍색실을 묶어서 날려보냈다고 한다. 같은 의미지만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다)
- 흐르는 물과 질그릇에 담긴 피, 피홀리고 죽은 새와 피물은 산 새.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물과 피를 흘리며 죽을 자신의 아들: 흐르는 물과 질그릇에 담긴 피는 예수께서 흘린 물과 피이며, 피홀리고 죽은 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이며, 피물은 산 새는 피의 뗏목으로 살아난 우리이다. 흐르는 물 위라는 표현은 살아 있는 신선한 물 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아마도 깨끗한 생수를 질그릇에 담고 그 위에서 새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면 질그릇 안의 물은 핏물이 되는 셈이다. 새 한 마리를 잡으면 일곱 번 뿌리고 다른 새의 몸에 뿌리 정도의 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 칠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예삿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몸을 정결케 하는 위생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한다: 옛 사람을 깨끗이 벗어 버려야 한다. 새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또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다. 대충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러운 요소를 철저히 씻어야 한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과거에 소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변화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뀔 것으로 가능한 일이다.

8. 제물이 좀 많다.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각각 어디에 사용했을까? 고운 가루와 기름은 당연히 소제에 사용되었겠지만.

속건제(12: 배상의 성격), 속죄제(19: 용서를 받), 번제(19: 감사)에 하나씩 사용되었다. 만약 우리가 범 죄한다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자그마치 세 가지다. 흔히 잘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만 드리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속건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9. 정결케 되는 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쳐야 하나?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나?

속건제는 그대로 드리되(21) 속죄제와 번제의 예물은 값이 거의 풀지 않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려도 된다. 소제도 1/3로 줄여서 드려도 된다: 제물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 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옆 사람의 눈치도 보아서 안 된다.

10.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라(14, 25)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같은 방법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레 8:23-24에서 위임식 때 행한 의식이다. 특히 이 부분들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끝 부분이므로 온 몸을 정결케 하는 의미와 들는 것과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 즉 모든 행위를 정결케 하는 의미라고 해야겠다.

출 21:6(신 15:17), 할례와 연관: 귀를 뚫는 것과 피를 바른 것은 시각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피흘림과 신분의 변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영원히 종이 되려면 귀를 뚫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피를 바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다. 피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다(히 9:22).

11. 피를 뿌리고 발라서 정결하게 하면 됐지 같은 장소에 기름을 또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피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기름은 종종 성령을 상징한다: 속죄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속죄만 능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굶주릴 때는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12.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은 광야 40년 생활 중의 첫 해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집 없이 장막에서 살았다. 장차 집에서 생활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34: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13.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34) 이 구절을 보면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가?

문둥병이 보이면 죄악의 두려움을 생각하고 풀이키라는 경고로 알라는 말이다: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지만 병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범 죄한 인류가 선택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베푸려고 하시는 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14. 가옥에 문둥병이 발하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어느 조치가 가장 마음에 드는가?

- 1) 집 주인이 신고할 것
- 2) 가장집물에 부정을 면케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볼 것
- 3)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벽보다 우묵하면 7일 간 폐쇄,
- 4) 7일 후에 보아서 색점이 퍼졌으면
 - 4-1)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집안 사면을 긁어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릴 것
 - 4-2) 다른 돌로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것
 - 4-2-1) 그래도 색점이 복발하여 퍼지면 악성 문둥병으로 판단,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목과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
 - 4-2-2)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므로
 - 4-2-2-1)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산 새를 함께 가져다가 잡은 새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

4-2-2-2)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

2번: 만약 가장짐물을 내어놓지 않고 악성 문둥병으로 판정나면 가장짐물마저 다 버려야 한다. 자신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15. 본문은 가옥에 발한 문둥병에 대하여 말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느낌이다. 생략된 내용은 무엇인가?

7일 후에 보아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을 경우: 가옥에 발한 문둥병이 아니므로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의 경우에는 옷을 빨아야 했는데?

16. 문둥병이 발하여 폐쇄된 집은 비유로 취급한다면 무엇과 같은가?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 연구>

장막치고 정처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집이 웬말이냐? 잘 먹고 잘 살 게 되거든 특히 주의하라는 의미로 해석할까?

거의 대부분의 장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시작된다. 몇 장만 예외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한다(11, 13, 14:33, 15). 차이가 있을까?

13장과 14:33은 내용이 연속되는 것이다. 14장 앞부분은 제사 규례와 유사한 내용이다.

레위기 15 장

1. 부정한 곳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는 이차적인 경우(하루만 부정)는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부정한 경우(7일 부정)를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가?

5가지:

1) 유출병이 있는 자(1-12), 2)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16-18), 3) 불결을 앓는 여인(19-24), 4) 유출병이 있는 (남)녀(25-26, 27절은 남자를 가리킴), 5)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32-33).

2. 부정한 경우를 의미상으로 분류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1) 실제로 불결하고 죄이기 때문에 부정: 남녀가 유출병이 있는 경우, 회복된 후 정결례를 행하기까지 부정함

2) 죄를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출산이나 생리의 경우)나, 의식법상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설정): 실제로 불결하거나 죄는 아니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에는 의식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정 기간 부정함. 식사 도중에 화장실 얘기하는 것이나 어른들 앞에서 방귀를 뀌는 경우처럼 무슨 큰 죄가 되거나 나빠서라기보다는 의식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요즈음 아이들은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하고? 하면서 대든다.

3. 유출병이란 것은 구체적인 병명이 아니라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병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인의 유출은 19절부터 언급하고 있으므로 2-3절의 유출병은 남자의 병이다. 그렇다면 현대식으로 하면 무슨 병일까?

성병(임질): 성병의 증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할 것이다. 현대인은 성병이라면 으레 젓매독이나 에이즈를 떠올리겠지만 매독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정복자들이 날뛰던 시대에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했고 에이즈는 최근야 등장한 것이다. 성경시대에는 임질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의 성병과 비교하면 병 속에 들지도 않는 것이지만.

매독만 해도 좋은 치료약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요즈음은 잠잠한 듯 싶으나 한 때는 공중화장실은 성병 치료를 위한 안내문이 도배되다시피 했었다. 무서운 질병이었다. 자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두뇌가 없는 아이처럼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킨다. 이름은 제일 아름다운지 모른다. VD라고 하는데 비너스의 병이란 뜻이다. 우리말로 매독이란 것도 매화꽃의 독이란 말로 미화되어 있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단명한 원인으로 곧잘 지목되는 병이다. 이제 더 무서운 AIDS로 대체되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4. 부정한 자가 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 옷을 빨고란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물이 그리 흔한 곳도 아닌 데 이렇게 열심히 빨 수 있었을까?

10번 (5, 6, 7, 8, 10, 11, 13, 21, 22, 27): 부정한 짓을 않으면 이렇게 많이 빨 일이 없지! 일단 부정하게 되면 무조건 빨아야 하고 몸을 씻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손씻지 않는 제자들과 싸움을 했던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옷을 어디에 빨아야 하는가? 어린양의 피에 빨아야 한다

(계 2:4, 3:7, 22:14)

5. 왜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할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저녁은 하루의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다.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나의 부정이 끝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새로운 저녁을 맞는 느낌이 우리와 좀 다를 것 같다. 아마 저녁에 중요한 일이 많았을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것이다. 분을 품어도 저녁까지 품지 말라든가!

6. 유출병과 문둥병을 비교해보면?

유출병: 내부적인 질병이지만 겉으로 봐서(타인이 보기에)는 멀쩡하다.

문둥병: 내부적인 질병이면서 겉으로 확인하게 드러난다.

겉과 속을 다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분부이다. 보이는 죄도 무섭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아는 것까지 정결케 하여야 한다.

7.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전염병을 옮기는 병원균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 사람은 주변을 온통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차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무슨 느낌이 드는가? 혹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생각나는가?

- 1) 유출병 있는 자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
- 2)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 3) 유출병 있는 자의 침이 묻은 자
- 4) 유출병 있는 자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 5) 그런 것을 옮기는 자
- 6)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자
- 7)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과 목기

이런 곳에 접촉하더라도 깨달았을 때 부정하다.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다. 본인이 부정하다고 자수하지 않으면 주변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

면 부정한 것이 아니다(5:3).

가급적이면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좋겠다. 돌아다니다면 주변을 온통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

차라리 부정하지 않도록 미리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누구처럼 고백성사가 싫어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처럼.

8. 아무리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나? 애기 젖이라도 먹여야 하면 어떡하지?

손을 씻으면 된다.(11)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하나님입니다!

9. 이렇게 부정하게 된 물건이나 장소는 어떻게 하나?

우선 병자가 나아야 된다.(26) 그 다음에는 언급이 없다? 저녁까지 부정!

10.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정함을 받는 절차는 무엇인가?

1)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13)

2) 제 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고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릴 것(14)

다른 속죄제와 비교하면 극히 간단하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다. 온 천지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신의 부정함에 비하면 정결례는 너무 간단하다.

11. 설정이란 단어의 의미는 남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한다. 부부간의 성행위에서의 설정도 왜 부정하다고 할까?

원래 부부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지만 범죄한 이후 인생 자체가 저주 아래 놓여버린 탓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동물적인 행동이기에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삼상 21:4, 출 19:15).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렇게 부정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사람을 부부간에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둘 사이에 엄청난 비밀을 묻어두신 분도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그랬지. 어쨌든 범죄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다. 모든 복이 일순간에 저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셨다.

12.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유출이 있는 여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부정할까? 무슨 근거로?

남자: 유출병이 있는 남자가 만진 것(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자,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과 목기: 11-12)은 부정하게 되는 반면에 유출이 있는 여자가 만진 것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자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는 말이 없어서 남자가 더 부정한 것 같기도 하다. 여자의 유출은 대체로 정상이지만 남자의 유출은 비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 죄가 많은 것이다.

13. 생리로 인해서 부부관계는 최소한 얼마간 금지되어야 하는가?

칠일(19) 이 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 된다면 비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단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신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의식이 항상 살아 있기가 쉽지 않다.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고의로 버렸는가?

14. 동침하다가 생리의 시작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생리중인 여인과 동침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레 20:18)는 규정과 비교해보면 24절(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던 칠 일 동안 부정할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일 것이다.

15. 이렇게 세밀하게 부정한 경우를 언급하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한 상태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옴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른을 모시고 살면 이런 제약이 많은 법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 나 편하라고 어른을 버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달리 설명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당부라고 하겠다.

16. 여자의 생리현상을 부정하다고 하면 되나?

실제로 부정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부부간의 설정과 출산도 부정하다고 하는 판이니 서럽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린다는 점과 자신의 느낌으로도 정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귀신과 관련된 일(제사, 배타는 일)에 여자를 뵈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탓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종족보존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여성이 다소간 희생당한 측면도 있고 보호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겔 36:17)

17.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정함에 대한 거부감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식구 중에 이렇게 깔끔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감사: 예수께서 이런 규정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도 얼마나 고달플까? 부정에 대한 이런 모든 의식법적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영적 교훈을 잘 알아서 수용해야 한다.

레위기 16 장

1. 무시(無時)로란 말은 아무 때나' 혹은 함부로란 말이다.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장 안 법계 위 속죄소 앞, 지성소: 대제사장도 일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금지된 곳이었지만 이곳을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의 죽음이 찢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위엄에 찬 곳을 무시로 출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2. 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가? 어떤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이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지정해 주신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작은 범죄라도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아나니야와 삽비라, 아간의 죄가 큰 것이다.

3. 하나님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떡이라도 생겨야지 자칫하면 사망인가(2, 13)?

죄인이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에서는 실수로 하나님을 만나면 용돈이 생겼거나 복된 일만 있었을 것이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만나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느닷없이 시부모가 돌이닥치면 위험인가? 기회인가? 평소에 어떤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다. 아무데나 빨랫감을 쿵쿵 쑤셔박아둔 며느리는 찌히는 거고,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평생 칭찬 듣는 것이고.

4.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전체적인 설명과 부분적인 설명이 네 부분으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이다(2-5, 6-10, 11-22, 23-28). 차근차근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짐승이 몇 마리나 필요한가?

자신을 위하여 2마리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 수양으로 번제물, 3절), 회중을 위하여 3마리 (수염소 둘과 번제물 수양 하나, 5-10절)

5.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를 본문에 나타난 내용만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몸을 씻는 일이고 가장 나중 할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2-5절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야 할까?

1) 물로 몸을 씻고(4) → 2) 거룩한 옷을 입을 것(4) → 3) 자신을 위한 속죄(11-14) → 4) 회중을 위한 속죄(15-19) → 5) 아사셀을 위한 염소(20-22) → 6) 옷을 갈아입고(23-24) → 7) 자신을 위한 번제와 회중을 위한 번제(24-25) →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낸 자와 속죄제물을 불사른 자의 정결례: 26-27)

준비물: 순서없이 뒤죽박죽처럼 보인다. 준비물을 행기는 것은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먼저라든지, 같은 종류끼리 행기하든지 해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6. 6-10절의 내용은 제물을 드리는 절차의 일부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다. 무엇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까?

속죄제만 요약한 내용: 번제 드리는 과정과 옷입는 규정을 제외한 속죄제만 자세히 기록하였다.

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2) 제비뿔은 염소를 속죄제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냄(6-10)

7.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 본문의 내용을 가급적 충실하게 반영한 제비 방법을 생각해보자.

천에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써서 주머니나 항아리에 넣었다가 고집어내는 방식: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란 말이 제비에 기록된 말이라는 점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란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적힌 제비를 뽑은 염소' 라는 말이다.

8. 회중을 위하여 죽는 염소도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산 채로 광야로 보냄을 받은 염소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예수를 닮았는가?

회중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보내짐(인류의 죄악을 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감), 주인의 손을 떠나 향량한 광야로 보내짐(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심) 만약 광야로 보낸 짐승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다.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어트리기도 했단다. 아사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보냄을 받는 염소; '쫓겨난 악령; 완전한 제거; 쫓겨난 염소가 거하게 될 광야의 지명' 등의 설명이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26절의 아사셀에게란 말은 아사셀을 위하여'로 번역이 가능하다. 개역성경의 난외주는 내어놓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9. 11-22절의 내용은 6-10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속죄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 2가지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가?

분향하는 것과 피를 뿌리는 일,

속죄의 절차를 다 밟기 전에는 아무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속죄는 오직 대제사장 홀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10. 12절의 장은 성소의 안 1/3 위치에 드리워져서 성소를 두 개의 방으로 나누고 있는 휘장이다. 장 안은 두 개의 방 중에서 지성소라고 불리는 안 쪽의 작은 방인데 한 변이 4.5m 인 정사각형의 방이다. 휘장이 쳐진 곳만 제외하고 사방 벽은 금으로, 천정은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으로, 바닥은 맨 땅으로 되어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법궤)라고 불리는 상자가 있고 그 상자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시온좌, 시온소)이다. 이 곳이 어떤 장소이기에 향을 피우고 주변에 피를 뿌리는가?

하나님께서 임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의 절차를 통하여 성결하게 해야 한다(20). 이 곳을 막고 있던 이 성소의 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바로 그 휘장이다.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11.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일인가?

아론의 속죄: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드린 것은 수송아지, 백성을 위해서 드린 것은 염소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임무가 막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의 속죄도 없기 때문이다.

12.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장소와 백성들의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장소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신의 속죄제의 수송아지 피: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고(14)

백성의 속죄제의 염소 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15)

약간 달라 보이는 듯 하지만 15절에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란 말은 같은 행위임을 나타낸다. 사실은 같은 방식이다. 속죄소 동편은 속죄소의 정면(앞)이다. 종합해보면 속죄소 앞에서 서서 한 번 속죄소 위에 뿌리고 7번 바닥에 뿌렸다.

13. 아론은 속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향과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다(11-19). 23절에 회막에 들어가서란 표현이 있는 것은 회막에서 나왔다는 말 같은 데 언제 나왔는가? 아니면 잘못 읽은 것인가?

지성소와 회막을 성결케 하고(20) 번제단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나왔다(18). 그 후에 산 염소에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냈다(20-22).

14. 23절의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이란 4절에 언급한 옷이며 제사장의 복장이다(출 28:40-43). 그러면 24절의 자기 옷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리킨다: 속죄제를 다 드리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론의 옷은 흉패, 예복, 겹옷, 반포 속옷, 관, 띠이며(출 28:4). 일반 제사장의 옷은 속옷(치마 형태), 띠, 관, 고의(바지형태: 출 28:40-43)이다.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히 화려하지만 제사장의 옷은 깨끗하고 흰옷일 뿐이다. 회개할 때는 흰옷처럼 하고 속죄받은 이후의 삶은 화려한 것이다.

15. 제사의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말이다. 아론은 예수님보다 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한다. 무슨 절차인가?

자기와 권속을 위한 속죄: 본래 아론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남을 위해 헌신하기 전에 자신의 속죄를 먼저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목사도 마찬가지.

16. 레위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번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다. 그런데 왜 제일 나중에 드리는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개없는 헌신은 무의미하다.

17. 32절에 제사장의 속죄 이야기가 있는데 33절의 속죄에 제사장이 또 나오는가?

32절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다. 즉 대제사장을 가리킨다. 33절의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을 가리킨다. 6절에 아론의 권속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다.

18.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현대적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자신의 몸을 확대하는 이교도들의 방법은 전혀 아니다.

19. 29-34절은 부칙이나 마무리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세 종류의 속죄를 하라는 것이다.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영원히 지키라는 것(29, 31, 34):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면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방식은 바뀌었을지라도 지금도 지키는 것이다. 제물이 바뀌었고 절차가 바뀌었을 뿐이다. 제사대신 예배로! 짐승대신 예수로!

20. 매년 한 차례 7월 10일에 드리는 이 속죄를 가리켜 대속죄일이라고 불렀다. 평소에도 잘못이 있으면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는데 대속죄일이 꼭 필요할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평소의 속건제나 속죄제는 손, 발을 씻는 셈이고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목욕을 하는 셈이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부정함을 포함한 속죄인 셈이다. 대속의 개념이 조금 담겨 있다.

21. 매년 드렸다는 것은 이런 속죄가 제한적임을 잘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어떤 효력을 가졌는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은 것이다. 단지 손이나 씻는 정도일 뿐이다. 용서받았으니 겁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범죄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다.

레위기 17 장

1. 거의 매장마다 반복되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에게 일러 가라사대 ()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란 말이 있다. 17장에 맞도록 빈칸을 채워 보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레위기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표현이 레위기에 몇 번이나 나올지 짐작으로 맞추어보자. (가장 근사치를 정답으로)

모세,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약 35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간접화법까지 합치면 56번이나 된다. 거의 장마다 평균 2번이라는 말이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거짓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2.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공장 속에서 좋은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애나 어른이나 혼자서 컴퓨터를 만지면 엉뚱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컴퓨터는 다른 가족과 함께 공유하게 만들어야 한다. 본문에서 그런 원리가 적용한다고 볼만한 것이 있는가?

뜰에서 잡힌 희생을 여호와께로(3): 뜰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더러웠던 모양이다. 이교적인 풍습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결혼한 남녀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이런 가능성이 큰 일 중에 하나다. 단독으로 만나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희생을 반드시 여호와께로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습에 비길 수 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은 대단히 유익하다.

3.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나 진 밖에서 즉,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잡지 말라는 말인가?

먼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4)고 했으므로 예물을 드린 후에는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회막문에서만 잡으라는 말이다(5): 정구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도록 버릇을 들여놓으면 아이들을 타처에 떠나보내도 걱정이 덜 된다. 그런 작은 버릇이 아이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이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4.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 잡는다면 요즈음 말로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살인 죄: 피흘린 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고 따라서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5. 짐승을 잡으면서 어떻게 짐승을 섬기나?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린다? 말이 되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머리에 절하듯이: 살아있는 돼지보다는 죽은 돼지의 머리가 더 존경을 받는다. 이것 참 웃기는 얘기다. 그것도 웃는 돼지라야 더 값이 나간다.

6. 수염소를 어떻게 음란히 섬겼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수염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음란한 행위와 같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음란이다. 아마 수염소 형상의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7. 5절을 보면 짐승을 회막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은 적이 있었다는 말인데 왜 그랬을까?

제사용이 아닌 식용이기 때문이다.

회막이 세워지기 전의 일이다.

8. 양을 치다가 보면 그 곳에서 양을 잡는 수도 생길텐데 그 때마다 회막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회막과 먼 곳에서 고기가 필요해서 짐승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므로 이 규정은 광야생활 중에 임시로 주어진 경과조치인 셈이다. 곧 개정된 규칙이 주어진다. 개정된 규칙이 어느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

회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 때 주어진 규정이며 나중에 개정됨(신 12:20-25): 관주 성경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3절의 진 안에서라는 말에 ㄱ표시가 있고 난 위쪽에 ㄱ를 찾아보면 벰, 신 12:5, 6, 13-15, 21이라는 표시가 있다. 벰은 비교해보라는 표시이다. 관주란 구슬을 꿰다는 뜻인데 성경의 흠어진 내용을 연결시켜놓은 것을 가리킨다.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한 성경은 성경으로 풀다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성경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9. 짐승을 잡을 때마다 회막으로 끌고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마라 이놈아! 화목제로 드리라(5)는 말은 피와 기름만 불사르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몰인정하고 자신만 아는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 달라고 하는 것을 내놓으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어른들이 애들 먹는 과자 하나 달라고 할 때 안줘도 귀엽지만 준다고 결코 손해볼 일은 없다.

10. 왜 뜰에서 잡으면 안 될까? 짐작할 만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 것 같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7):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먹는 문제로 얽어두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밥먹을 때는 한다. 거울에 성경구절을 붙여두면 여자들에게는 가장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식사 때보다 더 자주 확인하도록 해 두었는데 언제일까? 소

번올 때마다.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못하도록 아들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란 뜻)이라고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11. 십계명의 제 일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를 두고 혹자는 하나님을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한다. 어떻게 자기만 신이냐는 것이다. 엄마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 사람도 네 아버지지만 저 사람도 네 아버지란다.' 아버지는 한 분인 것이 좋다. 본문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와 동일한 표현을 찾아보자.

번제와 희생은 반드시 여호와께 (8-9)

12. 우리 선조들은 신체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 털이나 수염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꺾지 않았다. 이런 생각과 본문의 피를 먹지말라는 생각을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유교적 전통은 중요성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어쩔 수 없이 신체의 일부를 버려야 하는 것도 불효로 여겼다.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입을 대는 시어미같은 기분이다.

13.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주장과 피를 먹지말라는 것을 비교하면 어떨까?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생물의 가치를 사람만큼 높인 셈이다. 방생이 비중있는 행사가 되자 방생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거나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방생한다. 사람을 공격하는 벼룩이나 모기, 이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생각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다. 자연과 생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육식을 허용하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교훈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이다.

14. 피를 먹지말라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먹으면 안 되는가? 순대는?

피의 용도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11)이다: 피를 마시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잔인성, 급히 마시다가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것, 해로운 균이나 충을 거르지 못하는 등.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짐승의 피, 곧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다. 이런 짐승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은 독생자가 흘린 피를 보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 이제는 더 이상 피가 문제되지 않는다. 짐승의 피가 효력이 없는 시대이다. 순대 먹는 것이나 사슴피를 마시는 것을 성경과 관련지을 필요는 없다. 위생상의 문제요, 개인의 취향에 관계된 문제일 뿐이다.

15. 한 때 유행하던 지구를 떠나거라는 말이 있었다. 얼핏 들으면 나가라는 정도의 의미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죽으라는 말이다. 소련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비행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표현상으로는 별 것 아닌 듯 싶지만 내용은 끔찍한 일이다. 본문에서도 이처럼 얼핏 들으면 조금 안된 말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끔찍한 표현이 무엇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4, 9, 10):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투철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가장 끔찍한 욕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16. 다른 종교를 가진 타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종하지 않고는 머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이 불가능해진다.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에 정복당하지 않았다.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부작용도 많이 낳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지킨 셈이다.

17.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상은 성경만의 독특한 사상일까? 피를 식용으로 금지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일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인정한 것도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오래 전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11):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의 피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유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18. 짐승도 자살을 하는가(15)?

아니다. 스스로 죽은 것(15)이란 저절로 죽은 것 즉 자연사를 말하는 것이다.

19.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15) 이 구절은 본문 전체의 문맥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엉뚱한 내용이 붙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의 핵심이 피 때문인가 주검 때문인가(출 22:31, 레 11:39-40)?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피가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니다. 주검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지만 굳이 여기에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무래도 피가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레위기 18 장

1.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 학비에 보태라고 구제비를 주었더니 외상 술값 갚는데 다 써버렸다. 현찰은 안 되겠다 싶어서 쌀을 주었더니 쌀 팔아 술 먹는 사람이 있었다. 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심경이 이와 비슷할 것 같다. 본문의 어떤 점 때문에?

성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다. 부부 사이에 귀한 선물이다(잠 5:18, 전 9:9). 모르는 남녀가 서로를 좋아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준 것인데 이것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2. 18장의 서론(1-5)은 다른 장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길다: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와 너의 관계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너희는이란 말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느낌이 강조되어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데' 라는 말은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 이스라엘 자손들이 좇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좇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좇지 말아야 하는 것: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

좇아야 할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즉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되는 것이다.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우리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법인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교전통이나 무속신앙인가? 부부관계는 유교전통이 강하고 모든 것이 팔자소관이라는 것이나 운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4.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애굽 사람과 가나안인들의 본을 따서는 안 되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꼴 못 본다는 식이다.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짓이라면 우리 집 아이들도 해도 된다? 나는 그런 꼴 못 본다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특별한 모습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한다.

5.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더라. 6.25 때 전쟁고아를 데려다가 갖은 고생 끝에 키운 사람이 있었다. 누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아이는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키운 어머니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나중에 환경이 거꾸로 사람을 지켜주게 된다. 본문에서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을 찾는다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5):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살게 된다는 말씀이다. 개인적으로나 부부사이에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말씀 따라 살다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위험에서 말씀이 나를 구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 5:6)

6.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초가 바로 순결, 정조개념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결혼제도는 부정되어야 한다. 원하는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모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요지의 주장을 신문에 실었다. 하도 기가 차서 고등부 성경공부 시간에 읽어주었더니 한 학생이 평하기를 개처럼 살자는 얘기네요' 했다. 1장에서 17장까지 제사 이야기를 끝내고 바로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본문은 위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는 셈인가?

성윤리가 모든 윤리의 기초이다: 레위기 17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윤리의 가장 기초가 성윤리라는 것이다.

7. 애굽이나 가나안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부인을 빼앗기고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한 점, 보디발의 아내(목욕문화가 발달한 곳은 성적으로 문란함),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의 딸들, 유다의 며느리.

8. 제사의 규례는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 근친상간에 대한 본문의 규정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변함없이 유효하다: 종교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진짜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도덕법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근친상간은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며 가정의 위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9. 사람들이 개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욕할 때는 개를 들먹인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를 닮았다고 한다. 개가 들으면 무척 억울할텐데... 사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또 다른 욕, 혼

히 십원짜리 욱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상 같은 말이다. ×같은 놈, ×새끼, ×할 놈, 이런 욱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만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뜻이다. 이런 욱은 본문의 어느 구절과 관련이 있을까?

네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말라: 개는, 자라면, 어미 아버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미한다. ×할 놈이라는 욱도 사실은 그 앞에 너의 어미를 뜻하는 말이 생략된 형태이다. 생략된 그 말도 따로 독립된 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것이 가장 심한 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죽하겠는가! 성범죄 중에서도 제 일호가 바로 近親相姦이다.

10. 근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를 든 이유는 애급과 가나안에 이런 일이 그만큼 많았음을 암시한다고 보아야겠다. 여기에 예를 든 경우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근친 중에 누구와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지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범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자가 할머니를 범하는 경우는 없는 모양이다. 외모에만 끌리는 남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11.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이 명령의 대상은 전부 남자다. 여자는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여자에게 금지한 것은 어디 없나? 왜 남자에게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능한 대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니다. 만약 여성중심 사회가 된다면 성적인 것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간에 성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성적인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악한 경우에 해당한다. 성적인 행위도 사랑이라고 본다면 남자는 사랑을 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되기 쉬워도 가해자가 되기는 어렵다.

12. 여인과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치말라(17)? 따로 범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재혼한 아내의 딸을 가리키는 셈이다.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고 머리아! 좌우간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서는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골육지친이기 때문이다. 나의 골육지친 관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한 게 여기라는 것이다. 짐승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출 23:19, 레22:28, 신 22:6

13. 노아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놀아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가 뿔이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짐승과 교합하는(獸姦) 행위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이 짐승이 되니라! 육체가 된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올 만큼 큰 죄악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

14.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욱되게 하지 말라(21)는 말씀은 본문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삽입되었을까?

같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관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15.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나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려 소멸시켜버린 일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낸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매독이 번지고 AIDS가 창궐하는 것이 문란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19절의 경도중인 여자는 아내도 포함되는 걸까? 전체 문맥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유독 이 부분만 아내를 포함하는가? (15:19-24, 20:18)

혼외정사는 금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의 경우는 금하는 것 중에도 더욱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아무래도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듯.

아내의 형제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투기 때문인가?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면 그 여인을 더럽힌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욱되게 하는 것인가?

계모는 우리나라의 계모와 다르다. 어떻게? - 일부다처제의 母(르우벤의 경우)

레위기 19 장

1.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의 근거는 대체로 자신의 이익이다. *I love you*의 정확한 의미는 *I love myself through you*이다. 자신 보다는 이웃이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거룩해야 한다(2)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거룩이다. 곧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속에, 인간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2. 하나님이야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시니 거룩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까지 꼭 거룩해야 하나? 자기가 거룩하다고 우리까지 거룩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자신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기분이 나쁘기 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있느냐는 것에 먼저 감사할 일이다. '나같은 죄인 살리사...' 바로 이 감격이 나와야 정상이다. '너 적어도 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몇 번 나올까? 8 + (7) = 15번이나 반복된다.

3.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말을 적게 하고 점잖게 걸으며 엄숙한 표정을 짓고 검은 색 옷을 입으면 되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즉 부모를 경외(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것이 거룩의 기본이다. 뒤이어 나오는 수 많은 규정이 거룩의 구체적인 예이다(5-37).

4. 거룩을 이야기 하는 중에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열납)과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이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느냐는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사 자체를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받으시는 분의 뜻이나 기분을 헤아리지 않았기에 '제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사정을 하시는 것이다. (사 1:13; 말 1:8, 10, 13-14)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5. 교실 청소하다보면 쓸만한 필기구들이 꽤 많이 나온다. 고장났다고 버린 샤프 연필도 몇 개 모아서 일부를 갈아 끼우면 쓸만한 것이 많다. 20년이 넘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볼펜이나 샤프펜을 산 기억이 거의 없다. 이렇게 버리는 아이들을 성경말씀대로라면(9-10) 탓할 수도 없겠네?

아이들의 행위는 겸소하지 못한 일이고 추수 때 일부를 남기거나 버려두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행위이므로 전혀 다른 것이다. 알뜰하게 거두어서 갖다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양식 뿐만 아니라 일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와주되 자존심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추수 때 조금 남기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치밥이라고 부른다. 파치를 불쌍하게 여기는 법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법은 많이 다르다. 타국인을 가난한 사람과 동일한 처지에 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외국에 돈벌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던가 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의 행위는 정말 악독하다.

6.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많은 규정 중에서 나 자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각자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7.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외우나? 예수님의 방법을 권링하지 말고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

거룩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

8. 9-10절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하시더니 15-1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한다. 왜 말이 다를까?

9-10: 약자를 도우라: 사랑의 원리가 작용한다.

15-16: 공평하게 대하라: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면 처지가 딱하고, 세력있는 자를 보면 후환이 두려울 수 있지만 공의의 원리대로 재판하라는 것이다. 재판을 공의로 끝낸 다음에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상관없다.

9. 날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한다.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이름이 자기 집 강아지 이름처럼 취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귀역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14)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몰라도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10. 신, 불신간에 남의 약점을 악용하는 행위는 비열한 짓이다. 본문에는 어떤 예가 있는가?
품군의 솃을 아침까지(이튿날로) 미루는 것, 귀머거리를 저주하는 것,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
 그 외에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여종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예가 될 수도 있겠다. 우유값, 신문값 받으러 온 사람을 괜히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는 것도 이런 예가 되겠다.
11. 사람은 모이면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표시인가 보다. 이런 일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즐아다니며 사람을 논란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16) 말로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세우는 일을 하자. 무비판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비판은 있어야 한다(17).
12. 예수님께서도 이웃에 대한 이 모든 규정들을 하나로 요약하셨다. 어떻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19: 막 12:31).
13. 밑에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식물을 뭐라고 하지? 사람들은 새로운 혼합종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이다.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서 노새를 만들어 새로운 종을 탄생시켰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같은 밭에 두 종류의 식물을 뿌리는 것이야 어떨까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후 6:14-16)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두신 것을 억지로 혼합시키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키메라, 노새, 라이거, 합금, 혼방?
14. 종이 놓여나는 두 가지 방식을 찾아보고 설명해보세요.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다.
해방: 회년이나 안식년을 당해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킨다.
15. 20절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주인: 이스라엘의 종은 다른 문화권의 노예나 종과는 신분상 많이 다르다.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16. 비록 종이지만 정혼한 여인과 간음을 행하였음에도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가?
 여종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인도 죽어야 한다(신 22장). 그러나 종의 신분을 고려해서 형벌을 감하는 것이다. 남자에게도 죽을 죄가 아닌 것은 그래도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때문이다. 속량이 나 해방되고 정혼한 여자였다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
17. 나무를 심어도 바로 첫 해부터 과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4년 만에 겨우 열매가 달렸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불만이 없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말이다. 여리고 성을 칠 때 모든 보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 이후에는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 가졌다. 그게 아파워서 감추는 것은 스스로 아간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처음의 것은 양도 적은 것이다. 그 작은 것이 아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18. 23절부터 31절까지 들어있는 수많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라. ()하지 말고 ()라!
우상숭배, 하나님만 섬겨: 특히 26절에서 29절까지는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들이다. 이 교도들이 우상숭배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피채 먹는 것, 머리 둘레를 둥글게 미는 것, 수염 끝을 자르는 것 등이 전부 이교도들의 우상제사와 관계된 표현들이다.
19. 일반적으로 법률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가? 자비를 베푸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쪽인가?
 법률은 공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부자에게 신체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겨우 약자를 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이 결코 약자를 도와주지 못한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 대체로 기득권층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를 지 못한 사회에서는 법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 배려하고 있다. 1) 신분상 차별이 없다. 2) 자비와 공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고조선의 7대 금법이나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하면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20. 머리가 세다(희다)는 것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그렇다.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이 많은 것도 자랑인가?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를 허무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 위주의 사회라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나이도 들지 않았는데 쉰 머리는? 염색시켜 드린다.

책선 (責善): 친구사이에 서로 옳은 일을 하도록 권함

레위기 20 장

1. 본문이 언급하는 죄의 종류를 크게 나눈다면 몇 가지인가?

우상숭배, 성범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빠뜨리기 쉬운 죽을 죄가 한 가지 더 있다. 무엇일까? 그것은 범죄행위를 방관하는 죄이다(4). 당연히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2. 몰렉은 암몬족의 신으로 머리는 황소이며 몸통은 사람인 청동우상이다. 밑에서 불을 때면 뜨거워진 팔에 유아를 얹어서 죽게 하는 방식으로 섬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죽어야 할 자는 어떤 자들인가?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와 그것을 방관하는 자: 현대판 몰렉은 무엇일까? 몰렉보다 더욱 잔인한 우상은 어쩌면 돈이다. 돈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혹은 자녀나 부모를 죽이는 일이 가끔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말썽대로 우리 이웃이 그렇게 하면 풀로 쳐야 하나?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약의 율법을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나?

이스라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대로 다른 곳에 팔아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밥그릇을 허락도 없이 털어서 자녀에게 주면 노발대발하실 것이다. 밥 몇 숟가락이 아파워서가 아니다.

4. 그 지방 사람이 몰렉숭배자를 풀로 쳐서 심판을 하면 하나님도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나서서 심판하면 하나님은 좀 빠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심판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다. 사람들이 풀로 치거나 치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결국 사람들의 심판이 진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5.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란한 짓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숭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음이다. 1)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그렇게 쉽게 추종한 것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과정이 음란한 탓이다. 물론 본인들은 그것을 결코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 사랑? 자유? 라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음란이다. 2)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6.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주인을 전멸시키시는 이유는 극심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사방에 우상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유독 그런 행위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특별히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야 애인을 줄줄이 꿰차고 다니든 말든 손가락질도 하고 웃기도 하겠지만 내 애인이 바람피우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불행한가? 애비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고아가 부러워 보이는가?

7.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행위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보이는 부모(형제)를 공경(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일 4:20).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

8.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다른 표현을 찾아보자.

무자하리라(21): 단순히 자식이 끊어진다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이다.

9. 성범죄에 대한 10-21절의 내용은 18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내용이다.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본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자. 차이점이 있는지?

형벌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처벌규정이 덧붙여져 있는데 예외없이 사형이다. 성범죄를 왜 이렇게 중벌에 처했을까? 성 윤리가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 역으로 성적인 유혹이 그만큼 집요하고 매력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험한 것을 왜 인간에게 주셨는가? 잘 쓰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남용, 오용이 잘못이지 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10. 남매 간에는 하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죄가 되는가(17)? 한 집안에서 살면서 실수로 보게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본다는 것은 성관계를 가진다는 말의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뿐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11. 경도(생리)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죽을 죄가 되는 것은 피근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무도 피를 먹지말라고 하면서 피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오늘날에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만은 조금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다른 모든 관계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으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윤리적인 말살의 문제도 아니요 형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닌 종교의식상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성의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에 주의하고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 같다.

12. 여기에 언급된 이런 성범죄가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파괴범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준 재도이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를 허무는 일이다. 강도, 강간범에게 가정파괴범이란 말로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해낸 법관은 법에도 없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든 작품을 깨뜨리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3. 예전에 유행하던 지구를 떠나거라는 말은 웃음을 주는 표현이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웃을 일만은 아니다. 쭈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땅이 토하여 내리라(22), 무자하리라(21),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18): 다 답이 될 수 있겠으나 전자가 더 좋은 답이라고 본다.

14.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까지 꼭 거룩해야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유란 자녀요 아내인 관계를 말한다.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26). 당시의 가나안 풍속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성적인 자세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자.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점에서는 옛날보다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주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삶을 지녀야 할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15.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나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니란 증거가 본문에 있는가?

이런 계명을 어기면 이스라엘도 쫓겨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다(22):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것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한 심판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려고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심판의 측면에서 보아도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을 뿐이다(창 15:16).

16.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척박한 땅이요, 농사에 적합한 비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천국을 가리킨다.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것은 루터의 말이다. 진정으로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가나안보다 더 비옥한 땅은 천지뻘밭이다.

17. 왕처럼 귀한 분이 특별히 귀한 것을 따로 보관해놓고 보고 또 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본문에 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또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말로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어느 단어일까?

소유: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습 3:17)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레위기 21 장

1. 21장의 대상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에게만 따로 적용할 규례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제사장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었다. 그래야 한다. 목사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도 인간이다' 이런 소리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런 자세는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어야 바람직하다. 성도들은 목사도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을 것이다.

2. 제사장들이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 것(10-11). 일반적인 장례절차에 참여치 말라는 것이다. 그래도 조금 먼 친척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에 전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제사장의 할 일이다. 목회자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제사장이라도 장례식에 참석하고 슬픔을 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결족지친인 경우에 허용: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친자매의 경우에는 허용되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외는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양보할 때도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4. 제사장이라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아무래도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 이 경우에는 당연직인가? 아내는 한 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람으로 다루지 않았다.

5.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4-5)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수염 양편을 깎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긴 수염의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는 뜻이다)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다.

6. 제사장이 일반인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4)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6)

여호와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한 자라는 뜻이다.

7. 실제로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거룩할 이유가 없다. 아론만 해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인가?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 아닌가! 그럼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은?

8절: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거룩할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덕분에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8. 이혼당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가?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없을까?

제사장은 모든 일에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이혼한 여인을 찾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혼당한 여인이란 부정한 이유로 버림받은 경우를 가리킨다. 영국의 황태자가 사랑한 사람이 하필이면 미국의 이혼녀였다. 미국사람이라는 것도 싫은데 이유야 어쨌거나 이혼한 사람을 왕비로 모시는 것이 싫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가족은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 제사장의 딸은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벌을 더 받는다. 옳은 처사인가?

사리분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어릴 때는 구별하는 것이 그리 옳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구별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목사나 장로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 들리지 않게 잘 키우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예를 든다면?

부모의 상도 치르지 말라(11) 대제사장이 제사장보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름부음을 받고, 예복을 입은 점(10).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규정이 더 엄격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그 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대제사장은 부모의 상도 치를 수 없다. 이것은 너무 비인간적이거나 몰인정한 처사가 아닌가?

적어도 대제사장은 인간적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다. 우리 목사님의 부친이 위독해서 수요일 예배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목사님께서 부친 곁에 머물러 있으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여기 있으면 되느냐고 억지로 쫓아낸 부친의 모습이 생각난다.

12. 대제사장의 아내는 순결한 처녀이어야 한다. 제사장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그럴까?

어차피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법이니까. 다시 말하면 총각으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결혼이 아니라 흠이 없는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만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흠없는 처녀와의 결혼일 것이다. 성도들은 육체적인 순결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가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의 순결도 마찬가지다.

13. 장애자를 이렇게 차별해도 되나(17-21)?

인격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성결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다른 일, 즉 먹는 것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다(22).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일 뿐이다. 한국 교회가 현재 어려움에 처한 원인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은 법대, 상대 보내고, 실력이 못한 아들은 신학교에 보낸 결과가 교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자로 대하자는 뜻의 좋은 표현이다.

14. 국가 간에도 그렇고 정당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대화를 할 때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이 상대방에서 대화의 상대자가 누구냐라는 것이다. 상대는 장관급인데 이쪽에서 국가 원수가 나간다는 것은 굴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인가?

거룩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22 장

1. 나는 여호와니라는 표현이 19장에만 15번이나 나왔다(참고로 18장에 6번, 20장에 3번, 21장에 3번 나옴). 22장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

9번: 사람의 모든 기초가 여호와라는 말이다.

2. 여기서 성물에 가까이 한다(3절)는 말은 식사를 의미하는 말이다. 아론의 자손이 식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구별하는 것: 스스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2)는 말과 자신이 부정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3)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자신이 깨끗한지 먼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에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3. 1-3절을 서론이라고 한다면 본론은 4절부터 어디까지일까?

9절까지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제사장이 성물에 접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신체적 조건이 9절까지고 10-16절은 신분에 관한 내용이다.

4. 하나님께 받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3): 매를 맞거나 벌을 서는 것도 힘들지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관계를 끊자! 사람 사이에서도 이것은 무서운 말이다.

5. 부정하게 하는 것들, 즉, 문둥병, 유출병, 시체, 설정,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대한 말씀이나 그런 것에 접촉한 경우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4-9절)은 아무래도 앞에서 본 것 같다. 동일한 내용의 반복인가? 아니면 특별히 또 언급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가?

동일한 말씀이 앞에 기록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기록하는 이유는 적용의 대상과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문둥병(13-14장), 유출병(15장), 시체(5장), 설정, 부정하게 하는 벌레(11:20)-날개가 있고 기는 것

6.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어야 잠이 든다. 참 특이하다 싶은데 그런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그런 분들은 특히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왜?

부정한 짓을 하거나 접촉을 해도 해질 때면 정하게 되니까. 만약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배는 고프고 잠은 안 오고... (24시간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음)

7. 제사장의 딸로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딸과 이혼하고 자식도 없이 친정에 와 있는 딸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대우하시는지?

대우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이다: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속하여 제사장의 부양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8. 제사장의 딸로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이 친정에 다니러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친정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자기 식구를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 외국인에게 시집가면 안 되겠다.

9. 10절의 외국인과 13절의 외국인은 같을까? 다를까? 일반 백성들도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는데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에게 시집을 간다?

같은 단어이지만 외국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무리다. 영어로는 *outside*, 혹은 *layman*으로 번역되었다.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짜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이 본문에 있다. 25절의 '외방인'이라고 번역된 말이다.

10. 제사장에게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돈으로 산다(11)는 말은 일당이나 품삯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에 관한 말이다. 즉 제사장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만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껄껄하게 먹는 것 같고 그러나? 음식이 아파워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규정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고용된 사람처럼 어정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사람은 먹을 수 없다.

11.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서 안 되는 사람이 먹으면 그 음식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 이것은 어떤 범죄와 비슷한 셈인가?

성물에 대한 범죄를 갚을 때(5:16),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낼 때(6:5)

12.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열납되게 드려야 한다: 예물을 받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절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시대에도 제물의 상태가 중요했다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관심이 제물 자체에만 있다면 전부 불사르는데 흠이 있는 것이 별로 상관없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억지로, 아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기쁨이 모든 예배와 섬김의 기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 전도,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13.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고기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누어 먹었다. 그러면 굳이 흠이 있는 것을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절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시대에도 제물의 상태가 중요했다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말 1:8). 동시에 모든 제물은 훗날 죄없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10:11-14). 완전무결하신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완전무결한 것이어야 한다. 왕궁에는 왕의 법도가 따로 있고, 귀족에게는 귀족 나름의 법도가 있는 법이다.

14. 17-2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계를 설명해 보자.

17-20: 서론(원칙)

21-25: 본론(구체적인 실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간략하게 대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한 가지 특징이다.

15. 암컷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화목제에는 쓸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데에는 남, 녀가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예이었다. 서원제물은 전혀 봐주지 않지만 낙헌예물은 어느 정도 흠이 있는 것을 드려도 좋다는 것은 낙헌예물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럴까?

흠이 있는 자마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16.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용 짐승을 파는 무리들이 제사장의 비호아래 성업중이었다. 이들이 판 짐승은 무조건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짐승들은 제사장에게 제사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비리의 소지가 있었다. 만약 제사장이 이 본문의 규정을 악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어느 규정일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좌우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의적인판단이 가능해서 제사용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하면 다른 제물을 사서 드려야 했다. 가져온 제물을 싸게 팔면 다시 장사꾼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7.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종류로 규정한다면 하나는 흠이 없는 것(21-25)이어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

태어나서 최소한 7일은 어미와 함께 지낸 것(27): 최소한 7일 동안 어미의 돌봄을 받지 않은 짐승은 흠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것이다.

18.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상태도 중요하다. 그러나 부수적인 절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부수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어미와 새끼를 동일해 잡지 말 것: 아무리 육식을 허락하였더라도 어미와 자식간의 애정관계를 깨뜨리는 짓은 잔인하다. 짐승을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일도 금하였다(출 23:19).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는다.

제물은 이틀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당일 다 먹으라: 상하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오용되거나 몇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싫든 좋든 그날로 소비해야 하니까 힘이 있다고 욕심을 부리지도 못한다. 화목제물은 당일, 서원제나 자원(낙헌)제물의 경우에는 이틀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7:15-18).

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다른 족속들은 몰라도 너희에게만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32). 이스라엘은 얼마나 귀찮았을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감사 감격해야 옳다: 여호와와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에게서 무슨...이라는 말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데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지 모른다. 훌륭한 목사와 성도간의 관계는 헌신을 요구하고 그 헌신을 받아들이는 관계이다. 해준 게 없다고 자식 앞에 비굴한 부모보다는 해준 것도 없으면 자식 앞에 당당한 부모가 보기 좋다. 당당하게 너에게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신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홍길동이 온 천하를 헤집고 다니게 된 원인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불러보지 못한 탓이다. 그에게 유일한 소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네게는 아버지라고 불러야겠다고 한다면?

짐승들을 빨리 살을 찌우기 위해서 거세시키는 경우를 금함(24):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음: 국화 기르는 것이나 과일나무를 기르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현상인데?

레위기 23 장

※ 이스라엘에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본문은 종교력으로 표시되어 있다. 종교력으로 1월은 민간력으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한다. 수확기도 우리와 다르다. 1월에 보리(봄), 3월에 밀, 5월에 여름실과, 6월에 포도, 7월(가을)에 밭갈기, 8월에 파종, 9-11월은 겨울이다.

1.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움이 있다. 복습 삼아서 다음 제사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 놓은 것인지 생각해보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종류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제사의 방법, 화제(불로), 거제(들어올림), 요제(흔듬), 전제(부음).

소제, 번제: 제물의 종류,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번제는 생축을 드리는 제사

2.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전부 몇 개인가? 또, 절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적당한 이름을 생각해내든지 아니면 작명을 해보자.

안식일(3, 매주)과 7대 절기: 유월절(5, 1월 14일), 무교절(6, 1월 15-21), 첫 이삭을 바치는 날(10, 초실절), 50일 되는 날(3월 10일 경,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7월 15-22, 수장절, 초막절). 이 중에서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 우리나라에서 명절이나 공휴일은 무엇하는 날인가? 제사지내는 날, 친척들이 만나는 날,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날...? 일반적인 인식은 쉬는 날이다. 현충일(holy day)은 좀 달라야하지만 예외없이 쉬는 날(holiday)로 인식이 바뀐지 오래다.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는 무엇하는 날인가? 절기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회로 모이는 것(2, 3, 4, 7, 8, 21, 24, 27, 35, 36, 37): 일하지 말라(3, 7, 8, 21, 25, 28, 31, 32, 35, 36)는 것도 답이 되겠지만 성회로 모이는 것을 정답으로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은 안식의 소극적 표현이고 성회로 모이는 것은 안식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성회(축제의 성격을 띤)로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절을 보면 성회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4.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교회대신에 백화점이 더 주인공 같이 행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누가 주인공일까?

모든 절기는 여호와와의 절기다(2). 여호와께서 제정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절기의 목적은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5.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는?

무교절(8, 다음 제 7일이 안식일), 초막절(36, 다음 제 8일이 안식일)

6.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며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계속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안식일: 가장 기본적인 절기이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누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이며 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다시금 되찾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맛을 보는 날이다.

7.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유월절: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거나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었던 상관없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임을 잘 보여준다. 나의 공로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8. 세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다급하여 빵을 부풀리지 못한 채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교절: 딱딱한 무교병을 일주일씩이나 먹으면서 과거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행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한 민족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혼동되어 나타난다.

9. 기한에 미쳐란 말은 특정한 날짜가 되거든이란 뜻이다. 특정한 날짜가 명시된 절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1월 14일: 여호와와의 유월절

1월 15-22일: 여호와와의 무교절, 첫날(15일, 무노동)과 일곱째날(21일)은 성회로 모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과 화제를 드릴 것,

7월 1일: 나팔절, 신년 축제일이다.

7월 10일: 속죄일

7월 15-22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한 해의 결실을 저장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

하는 절기이다.

10.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혀 일하지 않아야 하는 날은 며칠인가?

5일: 7, 14, 15, 21, 28로 네 번의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15일)이다.

11. 첫 이삭을 드리는 제사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말은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라는 말이다. 이 안식일은 어느 안식일을 가리킬까?

무교절의 끝에 있는 안식일이다. 결국 세 절기가 붙어 있는 셈이다.

12. 첫 이삭을 드릴 때 드린 제사도 번제, 소제, 전제로 만만치 않은데 50일이 지나서 또 새 소제를 드리라는 데 함께 드리는 제사는 더욱 성대하다. 새 소제(고운가루 예바 10분의 2)를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요제로 드리고, 번제(어린 양 7, 젊은 수소1, 수양2)를 화제로, 전제, 속죄제(수염소1), 화목제(어린 수양2)를 드린다. 이중과세에 세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11절의 첫 이삭과 19절의 첫 이삭은 같은 걸까?

다르다. 아무래도 전자는 작은 추수값고, 후자는 큰 추수인 것 같다: 수확기를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지만 우리에게도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는 초실절로 보리, 후자는 칠칠절(五旬절, 맥추절)로 밀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하나님은 이유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분은 아니다. 제사의 종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더구나 추수 때의 유의사항이 따로 기록된 것을 보아도 더 큰 추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물을 드리고 추수를 시작했을까?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드렸을까? 제물이 많은 것은 제사장을 위함인가(20)?

13. 위의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이 많은가? 적은가?

개인이 드리는 제사라면 나중 제사는 제물이 많은 편이다. 공동체에서 드리는 제사라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제사는 제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잊혀져가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들이 숟가락 드는 일이 없었다. 이런 풍습은 이어가도 좋는데...

14. 흔히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떡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17).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암소는 번제에 사용할 수 없지만 화목제에서는 허용한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고생하던 날을 기억해야 하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번제가 아닌 요제로 혼들어 드리고(17, 20) 제사장에게로 돌렸다(20).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장대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신 것이다. 이혼의 문제도 본래는 허용된 것이 아니지만 여인을 위하여 허용한 것이다(마 19:8).

15. 수확기는 일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떨어진 것이나 모퉁이를 그냥 버려두라는 것도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보다는 팔꿈치게 추수해서 돈이나 현물로 돕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가난한 자의 체면, 노력을 위함이다. 남을 도울 때에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주는 사람이야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받는 사람 편에서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

16. 1월 7일이 안식일인데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으려면 요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7월 2일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특정한 날의 요일을 먼저 고정시키고 일년을 364일로 하면 된다. 윤달처럼, 윤주를 넣든지.

17.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해?

죄를 회개하며 근신하는 것: 좋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 거친 음식과 거친 환경에서 지나는 것, 6.25 음식이라면서 주먹밥을 나누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18. 안식일이 아닌데도 일하지 않는 날은 무교절 첫날이다. 그 외에 또 있는가?

7월 10일 속죄일이다.

19.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은 언제이며 즐거워하는 날은 언제인가?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가장 커 보이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은 7월 10일 하루인데 즐거워하는 날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다.

20.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특정한 날임을 선포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는 경우에도 나팔을 불었다(출 19장). 7월 1일에는 무슨 이유로 나팔을 불고 기념하라고 했을까?

신년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이다. 회년에도 나팔을 불었다.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종으로 팔린 사람이 놓여나고 빼앗겼던 땅도 돌아오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린다.

21. 37-38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절기예물(단제로, 의무)

일반예물(개인적, 수시, 자원) 개인적인 헌신과 작정에 따르는 것.

22.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즐거워하라(40)는 것은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말인가?

과일은 먹고 다른 가지로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이다. 찬송할 때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적이 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23.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5파운드야! 학기초만 되면 이렇게 자신의 별명을 소개하는 선생님이 계셨다. 5파운드는 야구 배트를 가리키는 말이다. 별명만 듣고도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버렸다. 폭력교사는 아니고 학생주임으로 지혜로운 분이였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시는데 본문에서 이 말이 주는 느낌은?

문맥을 무시한다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본다면 결코 아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돌아보시는 분이란 뜻이다(22, 43).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을 잡고 나시면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24. 민수기 28, 29장에도 절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확인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절기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다. 심지어 추수 감사도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땅을 주셔서...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특정한 날을 기억함으로 흐트러진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기념일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좋다.

25. 앞에서 각종 제사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본문의 각종 절기도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무교절의 무교병은 세상에서 연락(宴樂) 대신 거친 길이라도 끈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해준다. 나팔절의 나팔소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울려 퍼질 나팔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이삭은 다음 구절을 참고해서 예수님과 관련지어보자.

사 53:2, 눅 2:7 보리 이삭은 곡식 중에서는 별로 볼 품이 없는 축에 속한다.

고전 15:20 첫 열매를 뒤이어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다.

마 28:1, 요 20:19, 행 20:7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일이 되었다. 첫 이삭을 바치던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1에바는 약 23ℓ, 1힌은 약 3.7ℓ

1. 안식일

2. 유월절

3. 무교절

4. **초실절:** 첫이삭(보리) 단을 바치는 절기(유월절 절기 중의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 날 첫 수확한 곡식의 첫 이삭 한단을 흔들어 드릴 것, 번제(수양), 소제(기름 섞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 전제(포도주 4분의 1 힌)를 아울러 드릴 것, 제사장이 드림, 드리기 전에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 것

5.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밀의 수확과 관련

새 소제(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를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요제로, 번제(어린 양 7, 젊은 수소 1, 수양 2)를 화제로, 전제, 속죄제(수염소 1), 화목제(어린 수양 2)를 요제로(다섯 가지 제사를 드린다 15-21)

6 **나팔절:** 신년도래 (나팔 부는 절기는 뭐야? 어떨 때 나팔을 불렀지?)

7. **속죄일:** 7월 10일

8. **장막절(수장절, 초막절):**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레위기 24 장

- 등잔에 꿩이지 않고 불을 켜기 위해서는 많은 기름이 필요할 텐데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첫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감람나무의 열매도 소중한 농산물이다. 이것도 수확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 등잔의 불은 꿩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론은 언제 자나? 낮에도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가?(참고, 출 27:21, 삼상 3:3)
저녁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고르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 낮에는 등잔을 켜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순번제로 했을 것이다(눅 1:8).
-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제사장이 꿩이지 않아야 하는 등잔의 빛은 바로 이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레위기 본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해 보자. '우리는 세상의 _____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꺼지지(꿩이지) 않는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야 한다. 불신자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 등잔불을 꿩임없이 정리하는 것보다는 정리하지 않아도 계속 깨끗하게 타는 등잔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동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몸으로 봉사하기보다는 돈을 내고 말지!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도 더러 있다. 몸으로 헌신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좋은 등잔을 만들어 깨끗하게 좋은 불을 밝히는 것보다 자기 백성의 꿩임없는 헌신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재물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 하나님은 순결한 것을 좋아하시나 보다.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대, 순결한 상, 정결한 유향을 요구하신다. 여기에 사용된 순결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 기름을 짤 때 다른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아야겠지만 줄기나 잎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열매만으로 짠 기름을 말하고 순결한 등대란 순금으로 만든 등대를 가리킨다. 순결한 상은 조각목에 순금을 덮은 것이며 정결한 유향도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 에바는 약 23ℓ, 떡 한 덩이는 에바 10분의 2면 약 두 되 조금 더 된다. 12 덩이니까 전체는 23ℓ × 2.4에바 = 55.2ℓ, 즉 27되가 넘는다. 약 서말 가까운 분량이다. 누룩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부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일주일간 진설되어야 했으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면 떡을 차려놓은 떡상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 답을 정한 다음에 출 25:23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떡상의 크기(출 25:23): 장광고가 2×1×1 규빗이다. 4인용 식탁 정도의 넓이, 그 위에 세발 정도의 떡을 올린다면 누룩은 넣지 않아야겠다. 떡의 지름이 약 50cm이다.
-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다(8).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 되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율법도 성경도 성도를 위하여 준 것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명령을 준행함으로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된다.
- 약속, 계약, 언약은 기본 바탕은 같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 약속은 서로가 지키기로 정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라면 계약은 법률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언약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다: 문서로 하는 약속보다 말로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한가? 제대로 된 관계라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맹세를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말한 것을 죽도록 지키는 관계이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인지도 모른다.
말이 있어줄래? 그리고 대답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 우리 부부가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한 언약인 셈이다. 이 짧은 한 마디를 지키려고 평생 노력한 셈이다. 결혼식장에서 무슨 맹세를 했고 누구에게 무슨 약속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약속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확인하고 싶은 한 마디는 '나, 그 때 약속 지켰지?'이다.
- 제사장이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어디 가고 떡은 어디에 갔나?
떡은 예수요, 제사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형식적인 제사장도 성막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진정된 의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

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10.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제사의식이나 정결례에 관한 율법조항이다.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은 거의 없다.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도 제사와 관련된 기사로 본다면 아마 여기 기록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휘방하고 저주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유일한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 본문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조항으로 볼 수 있을까?

15-23절이 율법이고 그 앞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덧붙여 두었을 뿐이다.

11.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죽임을 당한 것은 아무래도 좀 심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설명해보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는 상황이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이시며 날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욕을 하는 셈이다.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것 아닌가 싶어도 하나님께서 진히 일을 이루시는 면전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품잡고 계시는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모음이 없는 글자를 발음하지 않으니 결국은 발음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음만 네개 남은 것을 원래 발음을 유추하다보니 여호와, 야웨, 두 가지 발음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저주한다?

12. 왜 싸웠을까? 싸우다 보니 성질이 난 김에 말이 헛나오지는 않았을까? 싸운 이유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혼혈이라는 뿐이다. 이것을 근거로 이 사람이 비극적인 결과를 당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자.

어미가 이스라엘인이면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의식까지 완전하게 이스라엘화 되지 못한 탓일 것,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음에도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비극이다. 교회 출석하면서 사고방식은 유교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다.

13.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안수는 하나됨, 전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나됨: 증언이 확실함을 나타낸다. 거짓이라면 죽은 사람과 한몸, 즉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가: 자신이 돌을 불경스런 말을 되풀여준다.

14.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빌려온 것인가? 함무라비 법전과 내용이 다른가?

이 법은 일반적으로 원수갚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아마 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사고방식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반영되었고 하나님의 법에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원수를 갚으라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 억제적인 측면이 강하고, 더 확대해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마저 사랑으로 대치시켜버린 것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떡상을 위하여: 12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떡이라기보다는 빵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규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

떡? 원어 확인, 학교와 교회 쥐가 가장 불쌍하다 했는데 누구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베들레헬, 기념하라!

7절의 화제는 어떻게: 유형만 기념물로

제사장 외에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삼상 21:1-6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면서 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사장의 자녀들은 먹을 때도 주의해야한다. 곳이 거룩한 곳인가?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

민 28:1-8, 출 25:23-40과 비교해 보면?(기록목적)

레위기 25 장

1.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것은 땅을 놀게 버려두라라는 말인데 땅이 소득의 유일한 근거인데 어떻게 놀릴 수가 있었을까? 자동차 10부제도 지키려고 마음먹어도 기분내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물며 땅을 일년이나 묵히다니! 땅을 놀린 다른 예인 유럽의 중세때 풀러짓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무엇인가?

풀러짓기는 지력회복이 목적이지만 안식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다(4절).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력회복이 주목적이라면 7년 만에 쉬는 것은 너무 길다. 도라지를 옮겨심지 않으면 지력이 약해져서 몇 년 만에 썩어버린다. 같은 농작물을 연속해서 심지 않고 바꾸는 것이나 퇴비를 충분하게 넣어줌으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안식년의 주목적은 지력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소출에 차이가 있다. 풀러짓기는 땅을 놀림으로 지력을 유지함으로 연작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출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21)

2. 안식년에 땅을 버려두는 것은 종과 품꾼과 객과 들짐승들을 위한 것이다? (O, X)

X: 땅(4)과 이스라엘 백성(6절의 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안식년에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어진다. 물질과 노동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우리도 때로는 바쁜 일상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다.

3.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이나 열매를 거두지 말라(5)면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6)이라면 말이 맞지 않는데?

안식년의 소출이란 씨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난 곡식이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것을 먹어도 좋다는 뜻이다(6,12). 다만 특정한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다.

4. 안식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 안식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 다음 안식의 주인공은 사람, 이제 안식의 주인공은 땅이다. 도대체 안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 본문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안식의 목표는 회년이다: 모든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 아마 마지막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안식년이 소출을 즐기는 점에서는 주인과 종과 짐승의 차이마저 없애버리는 해라면 禧年(유비레타, jubilee)은 더욱 확대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해이다. 노예상태에서 해방,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을 되찾음,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다. 해방을 당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모두 기뻐하는 해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몹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물질에, 재산 축적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

5. 나팔을 부는 7월 10일은 49년째인가 50년째인가? 새로운 날을 알리는 나팔이라면 1월에 불어야지 7월에 부나? 1월에 불지 왜 10월에 부나?

50년 째 7월 10일이다. 원래 나팔을 부는 날 7월 1일이다. 종교력으로 7월이지만 실제로는 신년 첫달이다. 신년이 왔다고 바로 회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나 기다려야 했다. 속죄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속죄일에 온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6. 회년에 파종하지 않으면 그 전 안식년까지 연속 2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셈인데 뭘 먹고 살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나 없나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7.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살 때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되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년이 몇 년 남았는가를 따졌다. 즉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8. 나중의 일이지만 안식년은 말할 것도 없고 회년도 끝내 지켜지지 않는다. 누가 회년을 기뻐할 수 없었을까?

사장님, 대지주,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 부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간세상이 결국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식년 제도가 없다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 각종 임금 제도는 최대한으로 노동력을 짜내는 방법이 연구되지만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이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능력없는 사람도 충분하게 고려된 임금체계가 연구되어야 한다.

9. 거래를 할 때 회년의 년수를 감안하는데 속이고 말고 할 게 있을까(17)?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원어의 기본의미는 억압하다, 분노하다이다. NKJV는 'do not oppress,' NIV는 'do not take advantage of'로 번역하였다. 회년의 년수에 상관없이 강자의 뜻대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10. 날씨가 맑을 날이 거의 없는 영국에서는 아침 인사가 Good morning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관심사는 밤새 안녕과 쉼이었다. 이스라엘의 샬롬이라는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말이다. 이

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이민족이 짓밟은 곳이며 농산물이 그리 풍성한 곳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하필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배부르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18-19): 잠시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안녕을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다. 물을 충분하게 가두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늑대들(이민족)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넣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할래 네 힘으로 막아볼래? 하시는 셈이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복이 많아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11. 6년째에 충분한 소출을 보장해 주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토지는 강제로 안식년을 얻게 된다. 토지가 어떻게 안식년을 누렸을까?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본 다음에 다음 구절을 참고할 것. 레 26:34-36, 41-45, 대하 36:21, 렘 29:10)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대하 36:21).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

1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17, 36, 43): 적어도 이 본문에 따르면 형제를 억압하지 말 것, 형제를 돌아볼 것, 종이 된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역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마저 바를 수밖에 없다.

13. 장기관에는 일수불퇴란 말이 있고 고스톱 판에는 낙장불입이란 말이 있다. 오락이나 노름판보다 하나님의 법이 왜 이렇게 더 물렁하나? 왜 언제든지 물려주라고 하는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다(23). 너희가 가진 그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만 분명해도 사람 사이의 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14. 성벽이 없는 지역의 가옥은 안 되지만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영구히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어떤 면에서 고급주택이다. 희년이란 제도가 부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성벽 안에서는 아무리 거주지를 넓혀도 크게 넓힐 수 없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재산의 축적을 허용하는 셈이다. 그래도 레위인의 것은 영구히 살 수 없다.

15. 흔히 하는 말로 돈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36)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하나?

본문은 착취나, 고리대금을 통하여 가난한 형제(35)를 착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오히려 녀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은 최소한 형제다움(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다.

16.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지 말고 함께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는가?

필연적인 선후관계: 부자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의 것이 동시에 아들의 것이 된다. 양자를 들었으면 다음에는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준 것은 범죄한 인생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릴 것에 대한 상징이다.

17.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와주어야 한다(35-38). 그래도 안 되면?

사야 한다. 일을 시켜서라도 볼보아야 한다. 희년까지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족 이스라엘은 영원한 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종도 안 된다. 종으로 사서라도 종으로 다루지 말고 품군처럼 대우하라는 것은 여전히 형제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특히 다른 민족에게 팔려가서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18. 능력이 없는 동족을 철저하게 도와주어도 돕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할까?

자신들이 노예생활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해 주었음을 기억해야 한다(38, 42, 55).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기도, 찬송,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좀 달라야 한다.

19. 이방인을 샀을 경우에는 영구히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차별하면 되나?

인격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지금도 이런 차이는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쉬운 길을 열어놓으신 이상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레위기 26 장

1.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말하기 전에 짧은 1-2절은 무엇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까?

모든 규례와 계명의 요약: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다.

2. 만들어 세우고 섬기지 말아야하는 것은 몇 종류인가?

세 종류: 목상(木像)은 나무에 새겨 만든 우상을, 주상(柱象)은 기둥처럼 세워두는 우상, 석상(石像)은 조각한 우상이다. 당시의 모든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3.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조형물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장승은 베어버리고, 불상은 부숴버리고, 사당은 불을 지르고, 점치는 자는 죽이고...?

송배하기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나의 영역 밖에서 남이 만든 것은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영역 안의 우상은 파괴해야 한다. 내 영역을 넓히기 전에 우상부터 때려부수자는 발상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4.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6-8). 정말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믿는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마귀와 대적할 때,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대상이 아닌 자들이 저희들끼리 치고 받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5.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말씀 같다. 무슨 근거로?

순종할 경우에 누릴 복은 짧고(3-13),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벌은 길다(14-45).

6.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신다면 굳이 이런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

최종 목표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은 끝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이루는 통로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최종 목표이다.

7.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면?

배부른 것: 기본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이다(석회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아무렇게 비가 오는 곳이 아니다. 파종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하게 오지 않으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평안한 것: 배부른 것이 육체적인 복이라면 평안은 정신적인 복이다.

번성하는 것(9)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다. 하박국의 잘 표현하고 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

8. 복권 때문에 웃다가 운 사람이 많다. 당첨되었다고 외상으로 물건을 잔뜩 들여다 봤더니 당첨이 아니더라. 당첨된 기쁨에 흥분하여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졸도한 사람도 있단다. 그런데 연이어 당첨되면 기분이 어떨까? 본문에 그것보다 더 진한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약 3개월),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것(5): 복권이냐 행운이라 하지만 애써 노력한 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은 행운보다 더 진한 기쁨이다.

9.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믿는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3-13)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보자.

이스라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미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이런 명령을 주시므로 3절이 구원의 필수적인 사전 조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나 못 사느나의 문제일 뿐이다. 심지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44-45).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주체적인 간섭의 결과이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일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은혜다. 규례와 계명의 준행은 복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그럴만한 근거가 되는가?

출애굽 사건(12-13, 44-45):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지난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12, 44).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말씀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출애굽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진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가리킨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진

짜 목적이 이것이다. 아버지가 매를 드는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 매를 드는 아버지가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다. 명예의 빗장목은 두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11.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 일어난 일과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순종할 때 주어진 다음의 복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 1)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 하늘이 철, 땅이 늦으면 비는 한 방울도 없을 것임
- 2)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 → 파종이 헛됨, 양식을 꿇으리라(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다. 각자 화덕을 피울만큼 연료도 없었을 것이다. 저울이 필요할 정도로 각박함) 자식의 고기를 먹으리라.
- 3)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 질병이 창궐, 대적에게 쫓김, 들짐승이 설침, 열방 중에 홀어질 것이다.
- 4)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함 → 수요가 감소함, 도로가 황폐해진다: 사람이 없어질 것이란 뜻이다. 고대의 도로란 사람들이 다녀서 생겨난 것이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도 묻혀버린다.
- 5) 대적을 쫓을 것 → 대적에게 패할 것,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17).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이다.

12. 남의 서랍을 허락없이 함부로 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서랍을 허락없이 열었을 때 몹시 기분이 나쁘다. 연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흔히 있는 일로 치부하지만 정작 본인은 감정이 몹시 상한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언약(9, 15, 42, 44, 45): 이스라엘이 호된 벌을 받게 된 죄는 배약(25)이다. 미국 사람들은 *promise*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벼운 이야기 끝에 *Would you promise?*라고 확인하면, 망설이다가 *No, but I'll try* 한단다.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본적으로 약속은 지킨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무섭지 않지만 그런 사회에서 배약한 원수를 갚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대단히 두렵다.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발하시면서 '~할진대'라는 표현을 빠트리지도 않고 사용했다. 몇 번이나 사용했으며 어떤 느낌이 드는가?

네 번이다: 첫 번째는 '~할진대'로 되어있지만 표기법상의 문제이다.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14-15) → 너희가 나를 거스려 청종치 않을진대(21) → 이런 일을 당하여도... 대항할진대(23) → 너희가 이같이 필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27)
느낌: 단 칼에 날려버리지 않고 점차적으로 경고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셋 만에 나오지 않으면 쏜다 해놓고 하나, 둘, 둘만, 둘의 반의 반...! 하는 것은 가능하면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래도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쪽에 더 의미가 있다. 양식의 문제를 본다면, 땅이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20) → 양식을 꿇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26) →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으리라(29)

14.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을 경고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황폐해질까?

거기 거하는 대적들이 놀랄 정도(22):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대적들은 즐거워할 정도는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대적들이 불쌍하다고 여길 정도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대적들이 놀랄 정도로 황폐되리라는 것이다. 반대현상으로 운동경기에서도 상대방 응원단이 상대선수를 응원하는 수가 있다. 적전에서 얼마나 잘 싸우면 적의 응원군이 야군을 응원하게 될까?

15.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징벌을 받게되어 땅이 황무하고 성읍은 황폐될 것이며 성소마저 황량케 될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아주 멸하지 아니함(44), 언약을 기억함(42, 44, 45), 열방 중에 홀을 것(33):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이스라엘만큼 모질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도 사라지지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다니... 2000년이나 나라없이 떠돌아다니며 온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망해버린 나라의 후손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울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겨우 36년간 받은 일제 압제의 후유증을 50년이 넘도록 아직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형편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6. 유대인들의 비극을 그린 영화가 '안네의 일기', '홀로고스트', '원뿔러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연상시키는 구절이 본문에 있다면?

36-39: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질 것, 열방 중에서 쇠잔하리라.

17.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풀려나야 할 종이 풀려나지 않거나,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시당함으로 사람도, 자연도, 하나님도 불행해진다. 땅이 쉼을 얻으리라! 땅이 안식하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이 백성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안식을 누린다(41, 43) 땅의 안식은 이스라엘의 불행이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대하 36:21)

18.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날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형벌을 순히 받으면(41, 43)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말하고 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후의 심판과는 다르다.

시후(時, 기후候): 계절

천답(밟을踐, 밟을踏): 발로 짓밟음, 원어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다.

레위기 27 장

1. 서원이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하겠다고 자원하여 명세하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면 되지 값은 왜 정하는가?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속전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게 했다.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속전을 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는 얼마나 다행인가!

2. 서원하고 값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전 5:5)라는 말씀은 서원은 꼭 값아야 한다는 말씀과 동시에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사람, 가축, 가옥, 토지

3. 서원한 경우 몸값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성경이 사람의 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못내 불만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싼 것 같기도 하다. 1) 다음 빈칸에 적절한 값이나 적어보자. 2) 몸값의 기준이 무엇일까? 3)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표에서 빠진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개월-5세	5 - 20세	20 - 60세	60세 이상
남 자	은 5세겔	은 20세겔	은 50세겔	은 15세겔
여 자	은 3세겔	은 10세겔	은 30세겔	은 10세겔

1)

2) 노동력의 차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일반적인 종의 값이 은 30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은 50세겔은 후한(?) 값이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사람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너무 비싸게 매기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만한 값에 우리 자신을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3) **가난해서 도저히 이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제사장이 형편을 고려해서 정한다. 자기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서원한 사람의 경우까지 공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세겔은 약 11.4g이다. 그러나 세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어느 세겔로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 일반 세겔의 두 배가 되는 것이 왕실세겔이었고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어느 정도 더 무거웠을까? 성소세겔이 사용되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보자.

20% 더 무거웠단다. 제사장에게 내야 하는 속전은 5분의 1을 더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아예 5분의 1을 더한 세겔로 통용했던 모양이다.

5. 9절은 짐승을 예물로 드리려고 서원을 하면 서원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짐승은 거룩하다는 뜻이다. 짐승이 어떻게 거룩한가?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설명해보자. (참고로, 둘 다 거룩하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함부로 바꾸거나 무를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꼭 무르려면 5분의 1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여유를 주셨다.

6. 정신없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으면 어떡하나? 돈이 있으면 값을 제사장이 평가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무를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에게 팔아간다(11):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안 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다. 예수님이 타신 것이 나귀잖아!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점치던 책을 교회에 다 바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나쁘게 보면 자신의 쓰레기를 교회가 치우게 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인 경우와 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7.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이지 제사장이 생축의 가격을 따지는(12, 14) 목적이 무엇인가?

무르려고 할 때(13, 15, 19)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열간에 정가하는 것도 같은 목적이다.

8. 하나님께 드리는 토지를 정가하는 이유가 생축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을까(16, 2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신 정가한 금액을 바친 것 같다. 희년 때까지 수확량에 대한 값을 매년 드린 것 같다. 물론 무를 경우에 대비해서 값을 정할 필요도 있었다. 만약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경작을 했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결국 토지를 바치는 사람은 제사장이 정한 정가대로 현금하고 농사를 계속 지었단다. 돈을 서원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9. 참고로, 두락(斗落)은 다른 말로 마지기(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넓이)이다. 한 호멜지기는

한 호멜(230ℓ)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이다. 땅의 가격을 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넓이와 희년까지 남은 햇수: 희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땅값이 비싸다.

10. 하나님께 바친 땅을 무르지 않아도 희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 돌아온다(21). 그런데 어떤 경우에 희년이 되었음에도 땅이 원소유주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번역이 약간 달라져야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판 경우: 희년이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해도 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합부로 타인에게 판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자신의 소유인지 자신이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소유의 대상인가 관리의 대상인가? 재산은? 우리의 삶은 선한 청지기의 그것이어야 옳다.

11.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무르기도 하고 값을 매기기도 하고... 5분의 1만 더 부담하면 하나님께 바친 것도 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어떤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고 하신 뜻도 겸하고 있다.

12. 다음 구절에 심표를 두 개 찍어 보세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을 될 것이며(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21):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13.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26)?

본래 여호와와 의 것이므로 첫새끼를 서원으로 바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14.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정가에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하던지 정가대로 팔던지 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27)?

팔아서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다.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15.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사를 드리거나 헌물을 드린다는 의미 외에 무슨 뜻이 있을까? 수 7:12(6:18)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죽인다는 의미가 있다: 사람을 하나님께 아주 바친다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처형한다는 의미이다. 전쟁에서 원수를 진멸하는 경우, 범치 못할 간음을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자고 백성을 유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레 20, 신 13:13-16).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멸하지 않았다가 자신이 버림을 당한 사람이 사울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 15:21).

반면에 인신제사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성경이 허용하지 않았다.

16.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28)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9절의 거룩하니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한다. 즉 본래의 용도나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9절의 거룩한 것은 무르거나 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과 남은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일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다.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성이 있을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경고함(레 2:3, 2:10, 6:17, 7:6, 10:17, 14:13, 24:9). 진설병, 향(출 30:36),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들.

17. 서원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는 이 곳에 굳이 십일조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십일조도 초태생처럼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 십일조는 감사의 헌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의무인 셈이다. 십일조의 대상이 된 제물을 서원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 유대인들은 가축을 우리에서 일털로 내보내면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가축의 수를 헤아렸다고 한다.